

2007.09

www.airforce.mil.kr Vol.351

공군

Monthly Magazine Air Force



기획특집

매력있는 공군인의 독서, 그리고 공군의 도서관

공군, 공군인
F-4E기 도입 30년에 얽힌 정비역사

e-Sports <ACE> 상반기 결산

ACE 10인의 절치부심(切齒腐心)



9월도 저녁이면

강연호

9월도 저녁이면 바람은 이분십표로 분다
 팔호 속의 숫자놀이처럼
 노을도 생각이 많아 오래 머물고
 하릴없이 도랑 막고 물장구치던 아이들
 집 찾아 돌아가길 기다려 등불은 켜진다
 9월도 저녁이면 습자지에 물감 번지듯
 푸른 산그늘 골똥히 머금은 마음
 빈집의 돌담은 제풀에 귀가 빠지고
 지난 여름은 어떠했나 살갗의 얼룩 지우며
 저무는 일 하나로 남은 사람들은
 묵묵히 밥상 물리고 이부자리를 편다
 9월도 저녁이면 삶이란 죽음이란
 애매한 그리움이란
 손바닥에 하나 더 새겨지는 손금 같은 것
 지난 여름은 어떠했나
 9월도 저녁이면 죄다 글썽해진다

- 강연호, 『세상의 모든 뿌리는 젖어 있다』, 문학동네

〈시 해설〉

어느새 9월입니다. 9월의 저녁엔 바람도 천천히 이분십표로 불어오는 게 느껴지는지요? 노을도 생각이 많아져 오래 머물고 있는 게 보이시는지요? 지난 여름은 어떠셨나요? 삶과 죽음, 그리고 그리움이란 것도 정말 늘어나는 손금 같은 것 일까요? 흐르는 세월을 생각하며 글썽해지는 가을입니다.

- 문학집배원 도중환

♣ 강연호

1991년 『문예중앙』시로 등단. 시집 『비단길』, 『잘못 든 길이 지도를 만든다』, 『세상의 모든 뿌리는 젖어 있다』 등이 있다.

CONTENTS

2007.09

www.airforce.mil.kr Vol.351



※ 표지설명: 공군사관학교 도서관에서 독서에 열중하고 있는 장병과 사서

표지사진: 김윤혜(사진작가)

공군 September 2007 No.351

발행일자 | 2007년 9월 3일(통권 제351호)

발행인 |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 공군본부 정책홍보실 정훈공보처

02-506-6295, 042-552-6295

기획·편집 | 공군본부 정책홍보실 중위 손재연

디자인·인쇄 | 공군교재창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04 기획특집 _ 매력있는 공군인의 독서, 그리고 공군의 도서관
- 11 장병기고 _ 건축사공기술사 합격수기
- 12 Bird Alert! _ 숨바꼭질의 명수 꼬마물떼새
- 15 9월의 공군 역사
- 16 공군, 공군인 _ 17전투비행단 군수전대, F-4E기 도입 30년에 얽힌 정비역사
- 20 e-Sports <ACE> 상반기 결산 _ ACE 10인의 절치부심(切齒腐心)
- 24 참모총장 스케치
- 26 공군은 지금
- 30 여기는 다이만 _ 레바논 장갑차 공수임무를 마치고
- 32 World-Wide Vision _ 지상 최전방의 공군인들
- 35 PREVIEW _ 9월의 문화행사
- 36 스페이스 에어포스 _ 우주시대의 고층대기
- 40 이미도의 Hollywood English _ 당신이 읽는 책이 당신이다
- 42 해외특파원 리포트 _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전망 2
- 45 시가 있는 풍경 _ 매미를 보며
- 46 행사소감문 _ 참모총장과 함께하는 하계 캠프 소감문
- 48 Rainbow Project 에세이 당선작 소개 _ 가슴에 품은 초록색 새순
- 50 생각하는 그림 _ 조직을 이끄는 숨은 공로자
- 52 정홍래의 음악산책 _ 교향곡과 베토벤
- 55 책마음 _ 내 안의 열 일곱
- 56 INFORMATION _ 2007 항공우주 무기체계 발전세미나

매력있는 공군인의 독서, 그리고 공군의 도서관

글 김희연 | 사진 김윤해



매력있는 공군인의 독서, 여전히 중요한 독서 습관의 생활화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이라는 소리가 들은 지도 꽤 오래되었다. 2007년 상반기 기준으로 해도 인터넷 이용자 수는 3,443만 명으로, 만 6세 이상 국민의 75.5%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인터넷에서 'TV, 신문 등에서 다루지 않는 다양한 정보나 의견을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책에서 얻었던 것들을 이제는 인터넷에서 찾고 있는 것인가 보다. 이런 추세 때문인지 작년 한 해 동안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 24%에 달했다.

그러나 TV가 보급되어도 라디오만이 주는 변치 않는 매

력이 남아있듯이, 온라인 수단이 아무리 발달해도 오프라인 매체만이 주는 이점이 있다.

디지털 시대의 발전과는 반대로 종이의 바스락거림이나 인쇄 활자의 친숙함과 같은 아날로그적 체험을 찾는 사람들도 많다. 여전히 삶의 지혜는 책에서 우러나오며, 책 읽는 문화의 중심인 도서관은 PC방만큼이나 재밌는 곳이어야 한다. 경쟁력 있는 공군의 독서와 그들이 찾는 도서관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공군은 공군 개개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독서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서는 전문 역량과 일반 교양을 가지고 변화와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공군 만들기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해 공군에는 전국에 걸쳐 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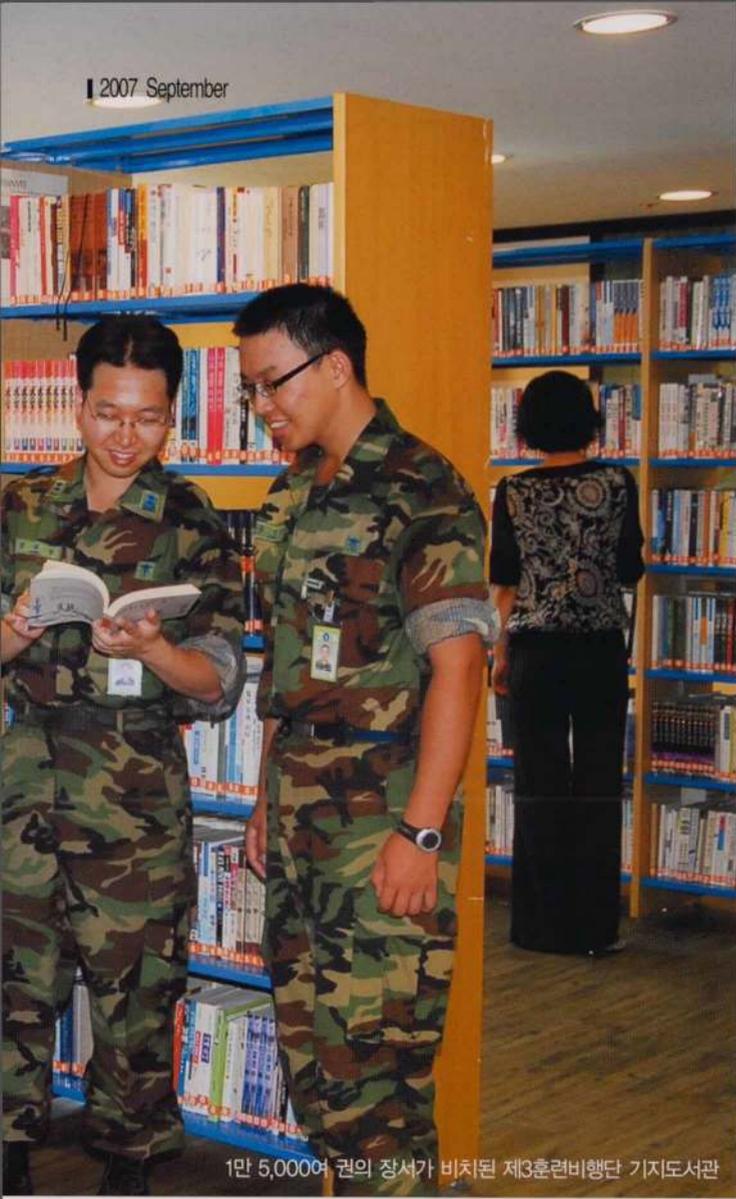
작은 100여 개의 부대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다. 이 도서관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도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최근 기지도서관 리모델링을 한 제3훈련비행단이 좋은 예다. 3훈련비는 장병들이 더 쉽게 도서관을 찾을 수 있도록 생활관에 가까운 쪽으로 위치를 옮기고, 이전보다 세 배 이상 많은 1만 5,000여 권의 장서를 비치했다. 일반열람실, 가족도서실, 디지털자료실 등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인 것도 특징이다. 장병들을 위한 예하 부대의 일반 도서관은 물론이요, 국내 유일의 항공우주의학 전문 도서관인 항공우주의료원 항공우주의학도서관도 공군의 자랑이다. 항공우주의학도서관은 항공우주의학 관련 해외저널, 국내학회지, 단행본, 참고도서 등과 시청각자료를 구비하고 있다.

항공군사전문도서관 기능을 하는 공사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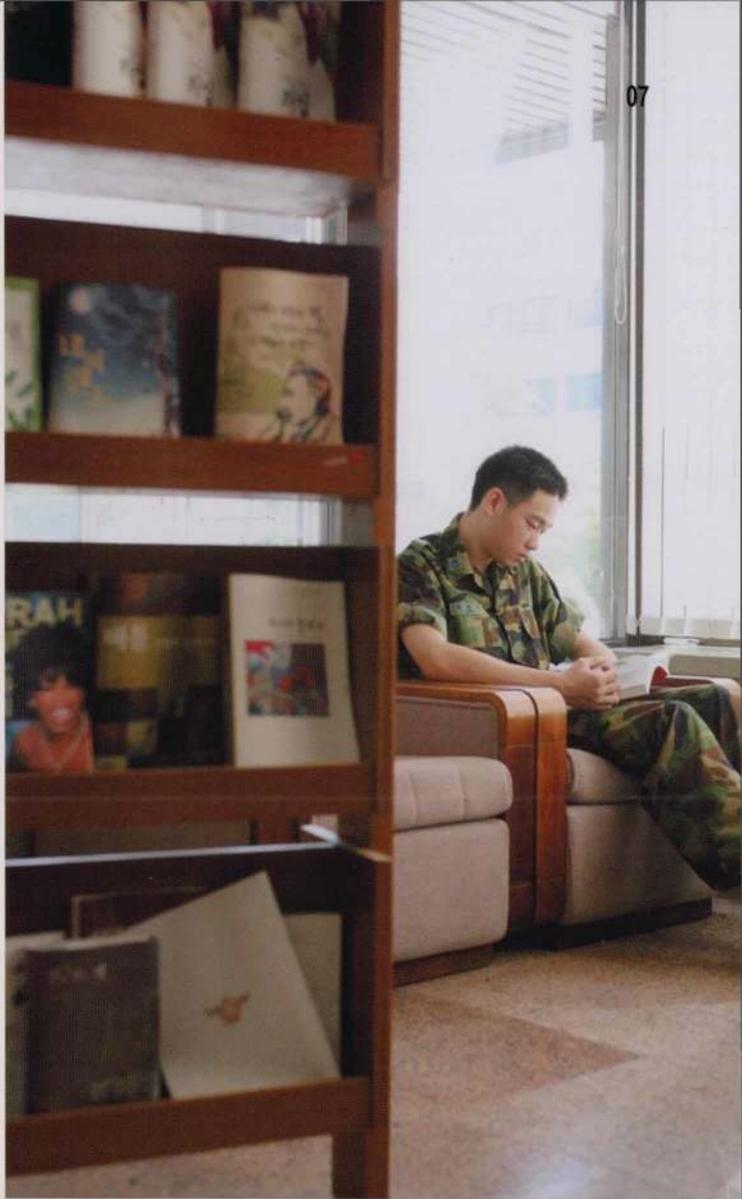
공군 내 많은 도서관이 있지만, 공군의 독서 생활과 도서관 이용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은 공군의 중앙도서관이라 할 수 있는 공군사관학교 도서관(<http://lib.afa.ac.kr/KAFAL>)이다. 공사도서관은 일반도서자료실, 시청각실, 정기간행물실, 군사항공참고자료실, 멀티미디어정보실, 자유열람실로 구분되어 있다. 총 보유도서는 18만 권이 넘고, 그 가운데 군사항공 도서의 비율이 13.5%를 차지한다. 늘어나는 장서들을 위한 서고, 학술 DB 검색 및 멀티미디어 자료열람을 위한 멀티미디어 정보실 그리고 장병들의 열람 공간 확보를 위해 내년에는 3층 규모의 전자도서관 건물이 증축될 예정이다. 총 여덟 명의 사서가 자료 DB, 도서열람과 대출,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사서 최은숙 사무관에게 도서를 반납하고 있는 장병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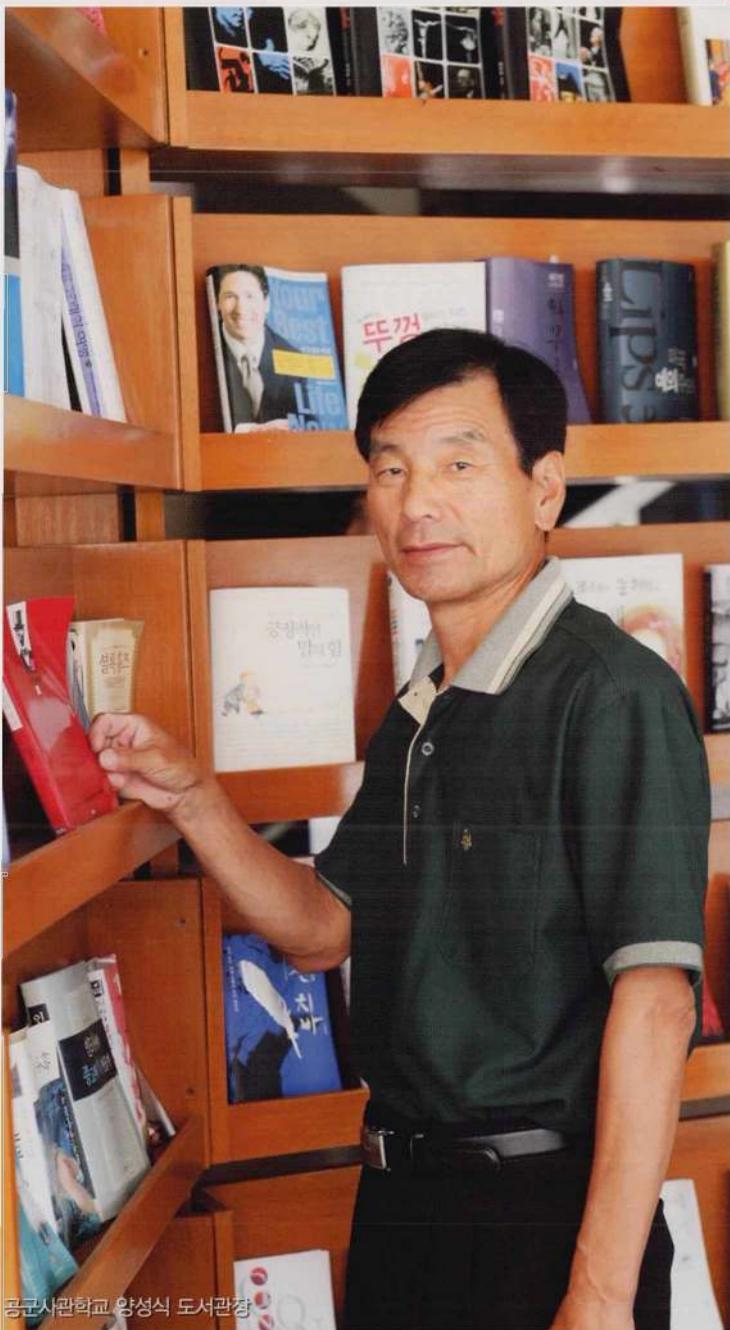




1만 5,000여 권의 장서가 비치된 제3훈련비행단 기지도서관



공사도서관은 생도들의 학업을 돕는 곳이자 항공군사 전문 도서관으로서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공군에서 나오는 간행물과 공군출신 민간대학 위탁생 석박사 학위논문 원문서비스, 복본 도서 예하 부대 배포 등은 공군의 중앙도서관으로서 하는 역할이다. 그 외에는 예하 부대의 도서관 운영 노하우 자문 의뢰에도 응답한다. 17년째 공사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 중인 최은숙 사무관은 대학도서관으로서 생도들과 군사항공 연구자들에게 기여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소개했다.



공군사관학교 양성식 도서관장

공사 교수부 군사전략학과 교수이자 생도대 훈육관인 엄정식 대위는 공사도서관을 자주 찾는 이용자 가운데 한 명이다. 수업준비, 논문작성, 생도훈육을 위해 1주일에 세 번 정도 도서관을 방문한다고 하니, 공사도서관 최다 이용자일 듯하다. 엄 대위는 신간서적이 나오면, 일단 도서관 홈페이지에 구매요청을 한다. 공사도서관을 개인서재처럼 활용할 줄 아는 베테랑 이용자다. “생도들은 군사항공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신들이 항공우주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수진은 개개인이 항공우주군의 학문적 바탕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도서관이 이런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자료와 연구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양성식 공사도서관장은 공사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바람으로 도서구입 예산 및 도서 기증 문화의 확대를 꼽았다. 최신 항공군사 관련 도서는 대부분 외국의 것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집에 꽤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육사도서관의 경우, 도서 구입 용도로만 쓰이는 기수별 기부금 제도와 같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공군 내 사례로는 올 초 공사도서관을 비롯한 예하부대 도서관에 출판사 (주)21세기북스에서 기증한 경영, 리더십, 소설 분야의 책 106종 4만 5,000여 권이 배포된 적이 있다. 이는 출판사의 김영근 대표의 공군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공사도서관이 항공우주군사 분야의 전문 도서관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 도서를 넘어서서 전문도서 구입을 위한 기증에 대해 공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대에도 독서의 향기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공군의 독서 열기를 느낄

수가 있다. 공군본부 홈페이지 '독서사랑' 만 보아도 충분하다. 공군 포털 내에서 방문 횟수 1위를 달리는 독서사랑에는 독서 감상문, 좋은 글, 독자 추천 등이 올라온다. 이런 온라인 활동은 공군들이 자신의 독서 감상을 적극적으로 올리고, 서로에게 좋은 책을 추천하여 더 질 높은 독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제20전투비행단의 '책 나누미'도 회원 수 800명에 이르는 예하 부대의 대표 홈페이지다. 독서 감상문, 신간 소개, 독서 의견 등의 게시판을 통해 20전비 장병들의 독서 생활을 엿볼 수 있다. 이 외에도 20전비에는 독서와 관련한 이벤트가 많다. 매주 토요일은 책을 읽는 'Book Day'로 지정되어, 이 시간에는 독서실이나 생활관에서 책을 읽는 병사들을 볼 수 있다. 또한 매달 우수 독서 감상문을 선정하여, 수상자가 직접 기지 내 방송에서 낭송하도록 한 점도 특이하다.

독서는 매력있는 공군을 만드는 토대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물어보는 디지털 시대에도 책은 질문 이상의 답을 내어 놓는 정보의 보고이다. 폭넓은 독서 환경이 마련된 공군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독서 습관을 들일 수가 있다. 홀로 부대 도서관이나 생활관 독서실을 찾아보거나, 옆에 있는 동료에게 책을 추천해 주며 경쟁력 있는 공군 만들기에 돌입해 보자.

책과 도서관을 사랑하는 공군

'못 줄 이유'는 서강대 영문과 교수이자 1급 장애인인 장영희 씨의 수필집 <내 생애 단 한 번>을 읽고, 신태운 상병(제1방공포병여단 제1작전통제처)이 쓴 독후감의 제목이다. 신태운 상병은 장애를 극복하거나 숨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 극단의 모습과는 달리,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생활하는 장영희 교수의 솔직한 서술이 맘에 들었다고 한다.

'못 줄 이유'라는 제목은 신 상병이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대목에서 따 온 것이다. 장영희 교수는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중에 옆에 있는 사람과 무엇이든 나누어 보라는 신부의 요구를 받게 된다. 황급히 적당한 물건을 찾는 그녀의 손에 음식점에서 입가심으로 받은 박하사탕이 잡혔다. 자동차 열쇠, 귀고리, 반지 등 소지하고 있던 물건들을 남에게 못 줄 이유를 찾던 그녀에게 박하사탕은 딱 좋은 물건이었다. 그런데 그녀와 선물을 교환한 할머니는 자신의 심장약을 건네주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일화는 줄 이유가 많은 데도 못 줄 이유를 찾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하며, 신 상병에게

는 자신이 느낀 감동을 독후감으로 쓰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이 독후감은 2007년 우수독후감 선발대회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신태운 상병은 독후감 대회 대상 수상자답게 책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도서관을 자주 찾는 공군 가운데 하나다. 어릴 때부터 서점에서 풍기는 책 냄새가 좋았다는 그는 지금도 1주일에 한두 권의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책읽기를 넘어 글쓰기에 대한 욕심도 있어서 독후감 대회 외에도 병영 문학상에 도전했다고 한다.



2007년 우수독후감 선발대회 대상 수상자
10여단 제1작전통제처 신태운 상병

“문학 분야의 책을 많이 읽고, 관심 있는 주제가 생기면 인터넷보다 도서관을 찾습니다. 요즘은 사진이나 여행 쪽의 전문서적을 틈날 때마다 읽습니다. 소장하고 있는 책의 양이 많지 않아도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갖춘 부대 도서관을 자주 이용합니다.”

모처럼 책 읽을 결심을 하고 도서관에 가는 병사들을 위해 신 상병이 제안하는 도서관 이용법은 ‘한 번에 한 권 빌리기’다. 한 번에 빌릴 수 있는 제한 권수를 다 채워 빌리게 되면, 한 구석에 미뤄놓고 읽지 않기 일쑤라는 것이다. 꼭 읽고 싶은 책 한 권만 빌려야 읽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도서관에도 자주 들르게 된다는 것이 그만의 독서 노하우다.



독서사랑 홈페이지

공군을 위한 권장 도서

매력있는 공군인이 읽어야 할 권장도서 100선 중 몇 권을 골랐다. 여기에 공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이자 생도대 훈육관인 엄정식 대위가 추천한 책을 더했다. 더위가 물러선 가을의 초입, 단 한 권이라도 독파해 볼 일이다. ㉠

1 이민규,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더난출판.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주제를 담은 이 책은 성공하는 인간관계를 위한 인간관계 개선 프로젝트이다. 이 책의 가장 뛰어난 점은 '~을 하라'고 강요하는 처세사가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사례를 통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고 끌리는 사람과 등을 돌리게 하는 사람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2 안철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김영사.

안철수연구소의 전 대표인 안철수 씨의 책이다. (CEO 안철수, 영혼이 있는 승부)가 나온 지 10년이 지난 후, 그동안 쌓인 안철수연구소의 경험을 담은 책이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안철수의 경영 철학을 기본으로 개인, 기업, 한국 사회에 대한 성찰을 담았다. 5부는 특별히 젊은 세대에게 보내는 글로 구성되어 '열심히 산다는 것의 의미'와 '책 읽는 방법'이 실려 있다.

3 피터 드러커, <프로페셔널의 조건>, 청림출판.

현대 경영학의 대부이자 사회학의 거두로 일컬어지고 있는 피터 드러커 교수가 자신의 모든 사상과 비전을 종합하여 보여준 '피터 드러커의 21세기 비전' 전 3권 중 첫 번째 책이다. 제1권인 <프로페셔널의 조건>은 개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각자가 속한 조직에서 어떻게 일해야 하고, 스스로를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4 로버트 그린, <전쟁의 기술>, 용진지식하우스.

"제목처럼 전쟁에 대한 이야기만 다룬 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익혀야 할 삶의 전략을 과거 위대한 전략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다만 내용이 방대한 편이라 책을 직접 보게 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분량에 부담 느끼지 마시고 목차에서 마음에 드는 전략을 하나만 선택해서 읽어보십시오. 짧은 역사책을 읽는 기본으로 하나씩만 읽다보면 부담이 줄어드실 겁니다."(엄정식 대위 추천)

5 캐서린 H.S. 문, <동맹 속의 섹스>, 삼인.

"제 전공이 정치학입니다. 정치학 서적 중에 우리나라 현대사의 이쁜 기억과 여성문제를 다룬 책이 기억에 남아서 꼽아봅니다. <동맹 속의 섹스>는 한미동맹이라는 국가안보적 문제 속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어떻게 국가안보를 위해 움직였는지 분석한 책입니다. 저와 같은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이 책의 저자가 직접 집창촌에서 살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실제 내용은 학문적이라 수기나 에세이와는 거리가 멀지만, 생도들에게 수업 중에 권하곤 하는 책입니다."(엄정식 대위 추천)

건축시공기술사 합격수기

이공계 대학을 나와 박사급에 해당하는 기술사를 취득하고보니 감회가 새롭다. 기술사 자격증은 면접위원으로 오시는 대학교수님조차 갖고 싶어 하는 자격증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 보고자 하는 공군 장병 후배들에게 나의 합격수기가 하나의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



글 소령 추현엽 | 제7항공통신전대 시설중대장

나는 고등학교에서 토목을 전공했지만 대학에서는 건축을 전공했다. 대학 야간과정에 토목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학업에 대한 나의 열정은 과를 바꿀 만큼 강력했다. 대학등록금을 집에서 대줄 형편이 안 되었기에 낮에는 철도청 선로반에서 힘겨운 철도레일과 침목을 갱환(更換)해야 했다. 하지만 밤에 배우는 기쁨에 들떠 중노동이 힘든 줄을 몰랐다. 대학시절 4번의 전액 또는 반액 장학금을 받아가며 학구열에 불탔다. 교과과목도 이수하여 2급 정교사 자격증도 취득하였다. 4학년 때는 건축기사 1급도 취득했다.

공군에 입대한 것은 기술력을 배우기 위함이었다. 항공기술의 총아인 공군은 청춘을 불사르며 도전해 볼 가치가 있었다. 나는 자랑스러운 공군의 시설장교로서 제91항공시설전대를 접하게 되었고 감독관으로 활동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91전대 생활이 내 꿈을 가장 마음껏 펼쳤던 시기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그러나 가슴 한편에서는 공부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했다. 시공회사의 현장소장과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이론으로 무장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기술인들이 우대를 받으려면 자격증으로 큰소리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험을 준비한 것은 2000년 9월부터다. 합격에는 장장 7년의 대공사가 걸렸다. 머리가 썩 명석치 못해서인지도 모른다. 처음엔 주말 학원에서 신공법, 신기술을 접하면서 대학교육 이후 새로운 정신무장을 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1점차 낙방소식에 시험을 포기하려고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게다가 계속 공부를 할 수도 없었다. 1전비 시절대대 통제실

장으로 근무할 때는 공부할 엄두를 못 냈다. 선공사후(先公私後)라 했지 않았던가? 근무가 우선이었다.

그러나 포기를 하기에에는 그동안 배운 것이 너무 아까웠다. 계속 시험을 보면서 나왔던 문제가 다시 나오는 것이 재미가 붙었다. 기출문제 중심으로 하나씩 점검해 들어갔다. 시험문제에도 이 예상은 적중했다. 합격할 때는 문제풀이 시간에 여유마저 생겼다.

시험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종일 치른다. 더욱이 100분 동안 10페이지 이상의 현장경험을 써내려 가는 것은 정말 고통, 그 자체다. 하지만 진정 합격을 하고 싶으면 이러한 고통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왜 안 될까를 생각하기보다 공부를 꾸준히 하고, 책을 계속 보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히면 나도 모르게 합격한 내 자신을 본다. 고생 끝에 낙(樂)이다. 도전도 해보지 않고 포기부터 해서는 안 된다.

공군의 자량이 전문성이 아니던가? 이제 한미 FTA도 타결되었고 정부도 기술사를 최고의 기술인으로서 대우해주겠다고 한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분야는 다를지라도 기술사에 도전해서 자신의 꿈을 과감히 펼치기를 학수고대(鶴首苦待)한다. ㉞





조류박사 현 준위의 Bird Alert 4

숨바꼭질의 명수 꼬마물떼새

피해복구자재를 점검하고 있던 시설대대 요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자갈더미 위에 작은 새 두 마리가 많이 다쳤는지 날지를 못하고 계속 몇 걸음 앞에서 쓰러지고 있다'고 했다. '잡아서 병원에 보내려고 가까이 가면 조금씩 달아나다가 땅에 쓰러지기를 반복하는데 잡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전화를 끊고 현장엘 가 보았다. 내 예상대로 자갈더미 위에는 꼬마물떼새의 둥지가 있었고 자갈과 비슷한 네 개의 알에는 아직도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때까지 꼬마물떼새의 어미들은 마치 심한 상처를 입은 듯 날개를 늘어뜨리고 다리도 부러진 듯한 행동을 하며 시설대대 요원 주변에서 맴돌고 있었다. 바로 의상행위(천적이 자신의 둥지 근처에 왔을 때 심하게 다친 듯한 모습을 보여 천적들이 자신들을 쫓아오게 한 후 둥지 먼 곳으로 유인하여 둥지에 있는 알과 새끼들을 보호하려는 물새 종류들의 일반적인 행동)를 하고 있었다.

모든 공군기지의 활주로 주변에는 일정 지역에 피해복구 자재인 자갈과 흙더미가 있다. 유사시에 적으로부터 활주로가 폭격을 당해서 피해를 당하게 되면 빠른 시간에 복구를 하여 우리 전투기가 출격을 할 수 있게끔 활주로 주변에 쌓아놓은 중요한 자재들이다. 이런 자갈과 흙을 사용하여 시설대대 요원들은 주기적으로 피해복구 훈련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이날도 이런 일상적인 점검을 하고 있던 중 꼬마물떼새들이 자신들의 둥지가 위험해지자 시설대대 점검요원을 유인하고 있던 것이었다.

대부분의 활주로 주변은 잔디로 조성되어 있기에 자갈이 많이 있는 곳을 둥지 만드는 곳으로 선호하는 꼬마물떼새에게는 이 자갈더미가 자신의 둥지를 만들기에 적합한 천혜의 장소였던 것이다. 세상에 최신편 전투기가 바로 옆에서 지키고 있는 이곳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을까?



1. 아기새가 어미새의 경계소리를 듣고 민들레꽃 아래로 숨어버린다. 2. 꼬마물떼새 알에서 새끼가 나와서 두 마리는 이소를 하였고 한 마리도 이소를 준비하고 있다. 3. 이소한 아기새가 자갈 사이에 숨어 있다.

꼬마물떼새의 습성

꼬마물떼새의 둥지는 보금자리라고 보기에는 너무 허술하다. 그저 자갈더미에다 약간 움푹하게 접시 모양으로 파놓고 작은 돌들로 자갈의 틈새를 막아놓은 것이 둥지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보기에는 너무나 엉성해 보이지만 자갈더미 위에 만든 둥지는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곧바로 배수가 되기 때문에 비로 인하여 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거의 없다. 또한 새들의 알이 주변 자갈의 모양과 색이 거의 비슷하여 자세히 보지 않으면 식별이 어려워 땅위에 둥지가 있으면서도 족제비나 뱀 같은 천적으로부터도 비교적 안전하다. 함께 동행한 일행에게 발치에 있는 꼬마물떼새의 둥지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앞에 있는 둥지를 찾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정도로 이 새의 알은 식별이 매우 어렵다.

이 새는 알을 3~5개를 낳아 암수가 번갈아 포란(抱卵)을 하며 알을 품은 지 3주 정도 지나면 부화가 된다. 알에서 깨어난 어린 새들은 몇 시간 후 털이 마르자마자 둥지를 벗어난다. 이 과정을 이소(離巢)라고 하는데 지상에 둥지를 만든 대부분의 새들이 나무에 둥지를 만든 새들보다 훨씬 빠르게 이소를 시작한다. 나무에 있는 것보다 땅에 둥지가 있으면 많은 천적들로 인하여 한꺼번에 어린새가 희생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어린새가 이소할 때에도 자갈은 중요한 은폐물이 된다. 어린 새를 감싸고 있는 깃털 색이 자갈색과 거의 비슷하여 위험이 생기면 자갈 위에 엎드리는 것

만으로도 발견이 어렵다. 또한 어미새를 따라가다가 천적이 나타나면 본능적으로 형제들과 흩어져서 자갈 틈이나 풀 속으로 숨고 그동안에 어미새는 천적을 유인하는 의상행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새들보다 비교적 생존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천적들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게 번식을 하는 관계로 비행장에서의 개체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자유롭게 활동을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조류퇴치요원들에게는 매우 골치가 아픈 새이다. 걸어다니는 것도 빠르지만 숨기도 잘하고 또한 날아다니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공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퇴치 장비로는 개체수를 조절하거나 퇴치하기에 한계가 있다.

꼬마물떼새 퇴치방법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행동하는 습바꼭질의 명수일지라도 이 새의 습성을 잘 이용하면 간단하게 퇴치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 이 새는 자갈 위에 번식을 하는 관계로 날씨가 무더워지면 자갈의 온도가 높아져 번식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이유로 주로 날씨가 화창한 봄에 번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활주로 주변에 쌓아놓은 자갈더미를 쇠스랑 같은 농기구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골라 주면 이 새의 번식을 대부분 차단할 수 있다.

번식기인 봄철에 2주에 1회 정도로 약 2달 정도 피해복구 자재 점검 시 자갈을 정리해 주면 '이 새가 전투기에 충돌하면 어찌나' 하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다. 꼬마물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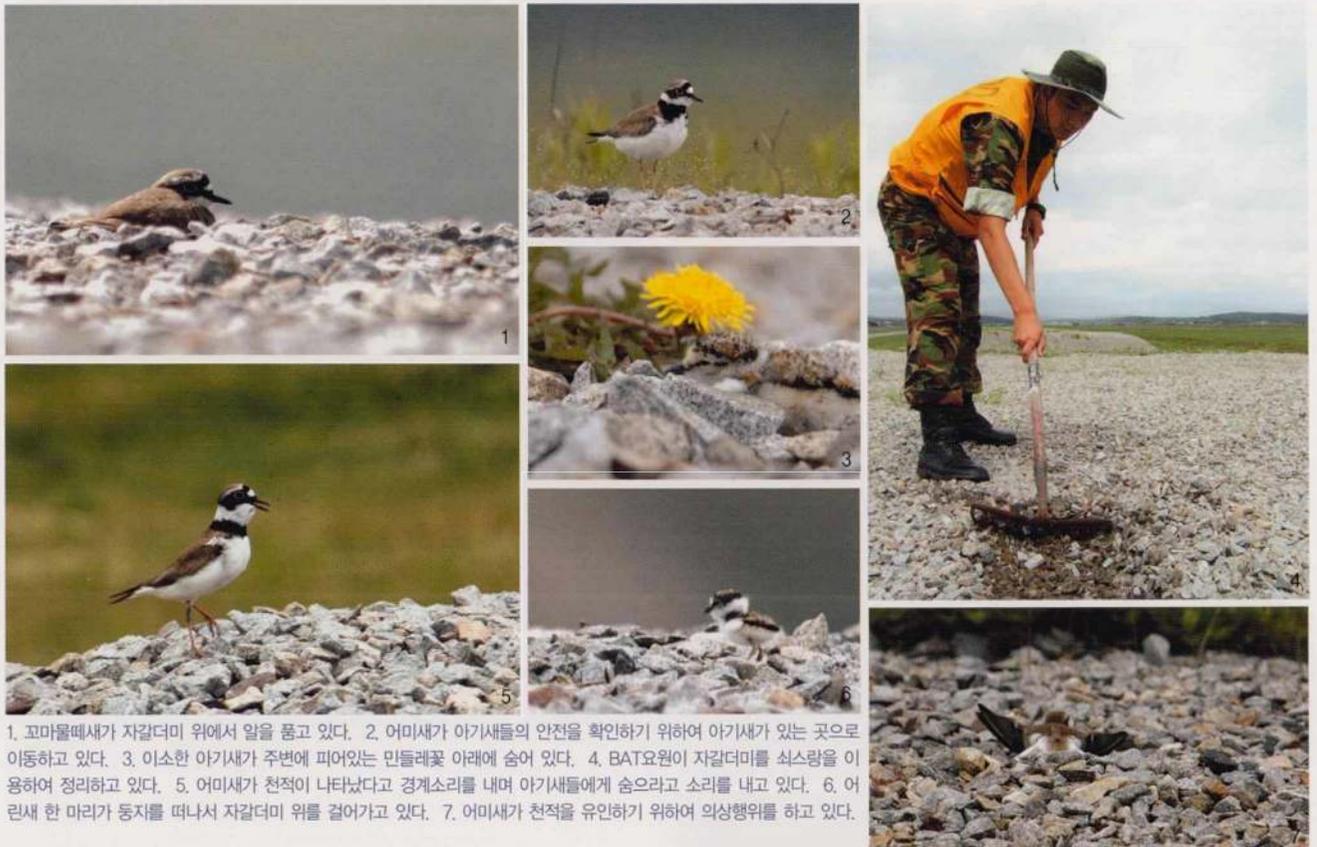
새는 번식지가 파괴되면 2~3회 정도 다시 둥지를 만들려고 시도하다가 계속해서 방해가 하면 다른 곳으로 서식지를 변경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비용도 들어가지 않고 손쉽게 새의 서식을 억제하여 자연스럽게 기지 밖으로 퇴치하는 효과가 있다.

삐요, 삐요, 삐요~~~~ 물새 특유의 노래 소리를 내며 활주로 위를 활주하듯이 낮고 빠르게 날아다니는 새가 있으니 바로 이 새가 꼬마물떼새다. 활주로 위에 작은 메뚜기 같은 곤충이 있으면 아주 빠른 총총걸음으로 걸어 다니면서 먹이를 잡아먹는데 그 모습이 너무 빨라 마치 스키를 타는 모습 같아 보인다. 하지만 이 새의 모습을 비행장 안에서는 더 이상 보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는 새들이 번식 장소로 이용하던 모래더미를 수시로 정리를 하게 될 터이고 그러면 강가에 있는 모래언덕에서나 어쩌다 이 새를 만날 수 있을 것이

다. 서산기지에서는 오래 전부터 꼬마물떼새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적용해 왔는데 매우 효과가 좋았으며 이 새들은 그 이후 간월호에 있는 모래섬으로 이동하여 번식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어젯밤에 많은 비가 내렸다. 번개와 천둥을 치며 밤새도록 내린 비는 주변 얇은 하천을 범람시켰고 간월호의 수위를 높여서 모래섬에 둥지를 틀고 있는 새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었을 것이다. 아마 거센 물결에 많은 둥지가 떠내려갔는지도 모르겠다.

은근히 날이 밝기를 기다려본다. 그리고 모래섬에 둥지를 틀었던 꼬마물떼새의 둥지가 안전하기를 조심스레 기원해 본다. 



1. 꼬마물떼새가 자갈더미 위에서 알을 품고 있다. 2. 어미새가 아기새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기새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3. 이소한 아기새가 주변에 피어있는 민들레꽃 아래에 숨어 있다. 4. BAT요원이 자갈더미를 쇠스랑을 이용하여 정리하고 있다. 5. 어미새가 천적이 나타났다고 경계소리를 내며 아기새들에게 숨으라고 소리를 내고 있다. 6. 어린새 한 마리가 둥지를 떠나서 자갈더미 위를 걸어가고 있다. 7. 어미새가 천적을 유인하기 위하여 의상행위를 하고 있다.



글·사진 **준위 현동선** | 제20전투비행단 조류담당

현동선 준위는 조류의 생태를 파악하여 무작정 죽이기만 했던 조류를 살리는 방법으로 유도한 비행단의 조류담당자다. 윤무부 교수를 도와가며 자료수집에도 매진한 바 있는 그는 현재 항공기와 조류 간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육교본을 작성하는데 한창이다.

9월의 공군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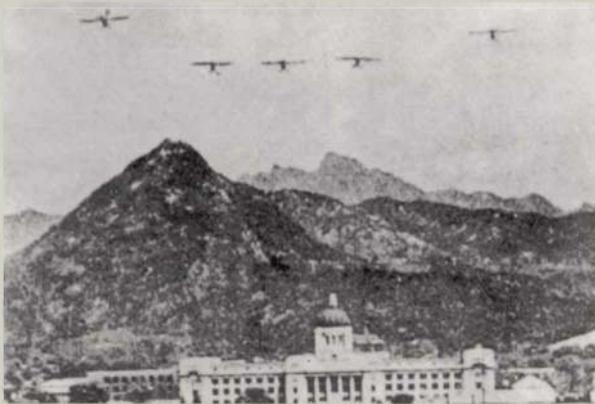


자료정리 군역사기록관리단

- 9월 1일 ● KT-1 항공기 도입(2000)
- 9월 9일 ● 국산전투기 제공호(KF-5) 제1호기 출고식(1982)
- 9월 15일 ● L-4 연락기 서울상공 시위비행(1948)
- 9월 16일 ● S-2A 해상초계기 도입(1970)
- 9월 18일 ● T-59 훈련기 도입(1992)
- 9월 21일 ● 북한공군 MIG-15 귀순(1953, 노금석 대위)

1948

L-4 연락기 서울상공 시위비행



서울상공을 전시 비행 중인 L-4 연락기들

1948년 5월 5일 통위부(국방부) 직할로 태동한 항공부대는 동년 7월 27일 항공기지부대로 개칭하였으나 미군으로부터 L-4 연락기 10대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변변한 항공기 한 대 없는 형편이었다. 9월 13일 미군으로부터 인수한 L-4 연락기는 우리 기술진에 의해 조립을 완료하였고, 단 한번의 시승만으로 우리 조종사들은 L-4 연락기 10대로 동시 이·착륙과 편대비행에 성공함으로써 미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다. L-4 연락기를 인수한 지 불과 이틀 후인 9월 15일에는 태극표지가 선명한 L-4기 10대가 편대군을 이루어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상공에서 전시비행을 실시하였는데, 최용덕

장군은 이날의 감격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내가 어려서 망명하여, 남의 나라 군문에서 몽매에도 잊지 못한 소원이 있었다. 그것은 내 나라의 군복을 입고, 내 나라의 상관에게 경례를 하며, 내 나라 부하에게 경례를 받아 보는 것이고, 내 나라 강토 안에서 태극기를 그린 비행기로 조국의 하늘을 마음껏 날았으면 하던 염원을 오늘 성취하고 보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1992

T-59 훈련기 도입

영국의 BAE社에서 제작한 다목적 고등훈련기인 Hawk(Mk 67모델)는 유사시 사이드와인더, 로켓탄 포드, 30mm 기관포 등의 무장장착이 가능하여 공격기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기동성과 우수한 기체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 고등훈련기 시장에서 베스트셀러로 평가 받아온 기종으로 우리 공군은 1992년 9월 18일 도입하여 T-59로 명명하였다. 이는 59의 한글 발음인 오구가 원 명칭인 호크(Hawk)와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이었다. ㉠



편대를 이루어 비행 중인 T-59 훈련기

17전투비행단 군수전대,

F-4E기 도입 30년에 얽힌 정비역사

글 김희연 | 사진 김윤해

군수전대장 천상필 중령



우리 공군이 F-4E기를 도입한 지 올해 9월로 만 30주년이 되었다. 한국 공군이 보유한 F-4E는 맥도넬 더글라스에서 생산한 것으로, 미국산 초음속 항공기 중 최대 생산량을 기록한 공대지 전투기다. 세계적으로 더 이상의 전투기는 없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 많은 공군들의 사랑을 받았다. 유령 혹은 도깨비로 번역되는 팬텀(Phantom)이라는 별명에서부터 전투기로서 F-4 기종의 위력을 짐작할 수 있다.

1977년 당시 F-4E의 채택은 베트남전 패배와 북한의 침공 위협 등으로 인한 안보 위기에 맞서 공군력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이후 30년 동안 F-4E기를 정비해 왔던 17전투비행단 군수전대로서는 올 9월을 맞이하는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17전비 군수전대는 1978년 17전비와 함께 단장 예하 군수부로 창설되었고, 1995년 군수전대로 개칭했다. 현재 군수전대장을 맡고 있는 천상필 중령과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서영환 준위에게서 지난 30년의 역사를 들어보았다.

창의적인 예방 정비 활동

F-4E기는 F-4D기 이후 도입되었으며, 항법계통의 디지털 시대를 알리는 서막이었다고 한다. 천상필 군수전대장은 “우리 공군전투기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 폭격기인 F-4E가 30년이 지난 오늘까지 천하무적인 것은 체계적인 정비 관리 방법의 뒷받침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항공기 정비에서는 점검과 세척, 재보급 등이 이뤄지는 부대 정비가 일상적으로 행해진다. 고장 탐구, 기능 검사, 교환 등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100시간 주기검사는 야전 정비의 과정이다. 완전 복구와 재정비가 이루어지는 창정비는 17전비의 군수전대처럼 대규모 정비시설이 있어야 가능한 단계이다. 군수전대가 작업하는 격납고는 공군 내 두 번째로 최신식 시설이다. 채광도, 난방 효율, 소화설비, 비상 전력 등 모든 면에서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17전비 군수전대의 정비는 ‘창의적인 예방 정비’라는 말로 요약된다. 결함이 생겨야 수리하는 사후 정비가 아니라, 항공기의 상태를 미리 예측하여 만전을 기하는 활동이다. 군수전대는 취약 계통과 부위에 대한 일일점검을 강화하고, 결함이 많은 항공기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정밀검사와 부품 교환 등을 적용해 한차원 높은 정비를 수행하고 있다. 군수전대는 올 봄 F-4E 주기검사 3,000대 출고라는 성과를 달성하여, 항공기 품질 관리에 있어서 최고의 부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하기도 했다.

안전관리를 생활화하기 위해 도입한 몇 가지 체계는 특히 돋보인다. 조종사, 정비사, 무장사 간의 워크숍이 그 중 하나의 예다. 2007년부터 전 조종사, 정비사, 무장사, 반장급 이상, 감찰실 요원까지를 대상으로 공중에서만 발생하는 특이한 결함에 대한 원인 규명, 계통별 유의사항, 비상조치 조언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워크숍을 시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작업장 내 운영 방침으로는 7S 안전관리 방식의 평가가 도입되었다. 정비 현장은 항공기 소음과 배기가스에 노출된 상태에서 유해 물질들을 다루는 곳인지라 근무 환경이 크게 열악하다. 정비사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을 주는 안타까운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안전(Safety), 분류(Sort), 정렬(Straighten), 표준(Standardize), 청결(Shine), 유지(Sustain), 시스템(System)이라는 7S 기준에 따라 더 나은 안전관리가 가능해졌다. 7S 안전관리가 자리 잡으면서 장비, 공구, 부품의 보관과 업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또 병사부터 관리자까지 전 장병에게 안전 취약 요인에 대한 의견을 받아 군수혁신 마일리지를 부여, 포상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팬텀기에 대한 애착

17전비 군수전대가 선진화된 정비 제도를 갖추는 데는 F-4E의 공이 컸다. F-4E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 정비 기술을 향상시키고, 그 정비 기술이 다시 F-4E를 살리며 30년을 그렇게 동고동락하며 지내왔다. 천상필 전대장은 “야간에 정밀 폭격 무장을 하고 비행에 나서는 F-4E의 모습은 장엄하기까지 하다. 사람에 비유하면, 기골이 장대한 장정과도 같아서 출격하는 모습에 눈물이 나기도 한다”며 그동안의 애착을 털어 놓는다.

긴 세월 동안 항공기에 얽힌 재미난 일들도 참 많았다. 언젠가는 한 전투기의 유속을 측정하는 계기 쪽에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 적이 있었다. 온 정비사가 매달려 살펴보니, 전투기 맨 앞에 달려 베르누이 정리에 따라 유속을 측정하는 피토 튜브(Pitot Tube) 안에 조그마한 벌레 한 마리가 들어갔던 것이다. 5만 4,197피트의 배선, 64만 3,000개의 패스너(Fastener)가 사용되는 F-4E를 관리하는 일이 얼마나 세심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웃지 못 할 에피소드다.

F-4E에 얽힌 생생한 경험담을 전해줄 이로는 걸어 다니는 정비 역사인 서영환 준위가 있다. 1971년 입대해 1974년 임관한 후, 1979년 17전비로 전입한 그의 정비 경력은 곧바로 공군 정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F-4D와 E를 30년 넘게 정비해 온 그에게 F-4E 도입 30주년이 주는 의미는 각별하다. 다른 전투기에 비해 호환성이 좋고, 화력이 엄청난 F-4E는 잘 기른 자식처럼 자랑스러운 존재다. “대통령을 모신 행사나 국군의 날 같은 큰 행사 때마다 F-4E가 나르면, F-5나 F-86의 조종사나 정비사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지요. 그만큼 긍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 출신 정비사들이 해외 공군이나 국내 민간 항공사에서 가장 원하는 인력이었던 이유도 F-4E를 정비해 본 경험에 있었다고 전한다.

오래 전 일이지만 서영환 준위의 기억에 남아 있는 에피소드는 1975년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일이다. F-4D의 엔진이 갑자기 폭발해서 대만의 기술자를 초빙했다. 전문가인 대만 기술자는 도저히 살릴 수 없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어떻게든 살려내야 한다는 당시 정비사들의 노력이 3년여 동안



F-4E 기체를 점검하고 있는 서영환 준위



이어졌고, 결국 전투기는 회생했다. 그 기간이 지금 창정비의 시초이자 세계적인 정비 기술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때만 해도 국력이 약했던 시기였지요. 항공기 한 대가 다 국민의 세금이고 공군의 자산이라는 생각에 정비에 쏟는 정성이 대단했습니다. 망치로 두들기기만 해도 선배들에게 혼날 정도였어요. 요즘은 정비 관련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예전과 같은 애착만큼은 사라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서 준위를 비롯한 정비사들이 많은 것을 배운 선배로는 지금은 전역한 김덕준 반장이 있다. 늘 기록을 꼼꼼히 남겨서 10~20년 전 자료까지 보관하고 있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던 선배다. 1990년대 이전에는 알루미늄으로 된 유압 파이프가 부식되어 터지는 일이 많았는데, 스테인리스 스틸로 재질을 바꾸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이 외에도 글로 다 옮기지 못할 만큼 많은 정비사들의 수고와 아이디어로 팬텀은 30년 내내 늙지 않는 현역일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공군의 최신예 전투기 도입 계획에 따라 F-4D에 이어 F-4E는 수년 내에 퇴역이 예정되어 있다. 비록 F-4D/E는 사라져도 군수전대의 창의적인 예방 정비는 멈추지 않는다. 조종, 엔진, 전기, 바퀴다리, 무장, 레이더의 모든 계통이 최상의 상태여야 하나의 전투기가 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듯이 정비는 대한민국 공군을 완벽하게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다. 천상필 전대장은 ‘혼을 담은 정비’를 강조한다. “항공기를 아이처럼 돌봐야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이가 상처는 없는지, 혹은 피곤하지 않은지 늘 살펴야지요. 언제나 예방이 치료보다 낫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비행 안전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탐구하겠습니다.”





박대만



김선기



김환중



e-Sports <ACE> 상반기 결산

ACE 10인의 절치부심(切齒腐心)

- 하반기 스타리그 '태풍의 핵' 으로

글 중위 유선의 | 방공포병사령부
사진 중사 성지용 | 정책홍보실

여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밀을 아는 남자

마놀로 블라닉(Manolo blahnik). 구두 디자인의 세계 3대 거장이라는 살바토레 페라가모, 로저 비비에르, 앙드레 피루지아의 대를 잇는 최고의 구두 디자이너다. 크리스천 디오르(Christian Dior), 캘빈 클라인(Calvin Klein) 등의 슈즈를 디자인하고, '내 신발은 패션이 아니라 제스처다.' 라는 구두 철학으로도 유명한 그는 지금도 보조생을 두지 않고 구두를 스케치하고 틀을 만들어 굵을 깎아내는 작업을 직접 한다. 이런 장인정신이 그를 '여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밀을 아는 남자' 로 칭송받게 만들었다.





성학승



이재훈



이주영



2007년 전반기 우리 공군은 「공군ACE」를 통해 행복했다. 2007 전반기 스타리그 전적 6승 16패, 비록 12개 팀 중 12위라는 (겉으로 보기에)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지만,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강팀을 상대로 거둔 드라마틱한

승리들이 우리를 짜릿하게 했다. 우리나라 e-Sports에 전무후무(前無後無)한 기록과 공적을 남기고, 현재도 최고의 자리에 있는 황제(皇帝) 임요환을 비롯해 각자의 팀에서 우수한 프로게이머로서 견고한 자리를 구축하고 있던 8명의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연습조건에도 팀의 승리를 위해 개인전과 팀플레이를 가리지 않고 출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그들의 희생정신이 「공군ACE」를 '공군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밀을 아는 팀'으로 만든 것이 아닐까?

5사에서 10인으로

이재훈, 김환중, 김선기가 합류하기 전까지 사실 「공군ACE」는 변변한 토스 하나 없는 「반쪽 팀」이자 5명의 구성원으로 만들어진 「초미니 팀」이었다. 구성원 하나하나가 각자의 종족에서 일가(一家)를 이룬 실력자들이긴 했지만, 빠르게 변해만 가는 맵과 경기양상을 5명에서 감당하기는 어려운 노릇. 터무니없이 얇은 선수층으로 인한 눈에 보이는 엔트리 편성이 시즌 초반 번번이 「공군ACE」의 발목을 잡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전반기 중반 합류한 세 명의 선수에 이어 후반기에 이주영과 박대만이 가세하면 10명이라는, 전반기에 비해 두 배나 확충된 인원으로 후반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 보다 다양한 엔트리를 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습상대도 늘어난다. 각자 자신 있는 맵과 전략을 중점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긴다. 시즌 후반, 「공군ACE」의 새로운 필승카드로 떠오른 김환중이 「르까프 오즈」의 사신(死神) 오영종을 상대로 거둔 짜릿한 승리는 이제 정상궤도에 올라온 김환중의 실력이 가장 큰 동력으로 작

용하긴 했지만, 에이스 결정전에도 '토스'를 내세울 수 있다는 「공군ACE」의 한결 두터워진 선수층이 승리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5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 인원은, 단순히 인원이 두 배 늘어난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더 큰 것이다.

후반기 스타리그 '태풍의 핵'

편제상 「공군ACE」는 이주영과 박대만 이후에도 두 명의 선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 지난 시즌처럼 시즌 중에 선수를 더 받지, 내년을 기약해야 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감독의 말에 따르면 하반기 시즌 도중 충원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 후반기에 두 명의 선수가 더 보강되어 12명의 인원을 채우게 된다면 시즌 중반 「공군ACE」는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선수들만으로도 전반기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강된 전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듯하다. 많은 이들이 전반기 우승팀인 「삼성전자 칸」과 상위권에 랭크되었던 「르까프 오즈」, 「MBCgame 히어로」의 지속적 강세와 더불어, 「SKtelecom TL」, 「KTF Magics」 등 전통강호의 부활, 「공군ACE」의 돌풍을 하반기 시즌의 특징으로 예측하고 있다. 물론 프로의 세계에서 선부른 예상은 금물이고, 널뛰는 주식시세만큼이나 맞추기 힘든 것이 프로리그 성적이지만 그만큼 우리 「공군ACE」가 무서운 팀이 되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전반기와 비교할 수도 없는 전력으로 새로 태어난 「공군 ACE」. 전력뿐 아니라 감독도 지난 시즌 중반 취임한 김평강 중위 체제로 새롭게 시작한다. 하반기 「공군ACE」의 확실한 도약을 장담하는 김평강 중위와 잠시 인터뷰를 해 보았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제대로 된 전력을 갖추고 새롭게 출발하는 「공군ACE」 새 감독의 의지가 야무지다. '이러다 덜컥 우승이라도 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글을 쓰지?' 하고 문득 생겨난 나의 걱정이 기우(杞憂)로 끝나지 않기를 기원해 본다. 

감독 김평강 중위 인터뷰

Q 하반기 목표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나?

A 하반기 4강, 내년 전반기 결승진출이 목표다.

Q 아직 다른 게임단에 비해 선수층이 얇은 것이 사실인데, 어떤 근거로 4강을 목표로 하는가?

A 구성원 하나하나가 정상급 실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전반기에 비해 팀워크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

Q 「공군ACE」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 선수들이 스타 부흥기에 전성기를 누리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스타를 사랑해 온 관중들의 압도적 응원을 얻을 수 있고, 정상급 선수들의 노련함과 위압감이 신예들에게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공군 가족들이 어떤 마음으로 응원해주었으면 하는지?

A 「공군ACE」가 전 공군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공군인」이라는 소속감, 동질감을 가지고 경기를 관람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들을 따뜻한 격려의 시선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



가도 김평강 중위

Hot SKETCH

참모총장 스케치



◎ 제5전술공수비행단 UFL 연습현장 순시

참모총장은 8월 23일, 제5전술공수비행단을 순시하고 UFL 연습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훈시를 통해 유사시 5전비는 양륙(揚陸, 배의 짐을 물으로 운반함) 공항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특전요원 및 전쟁물자 공수 등의 특수임무를 전담해야 하는 부대인 만큼, 전 장병이 사명감을 갖고 보다 실전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제516방공포대 순시

참모총장은 8월 2일, 제516방공포대를 순시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훈시를 통해 "포대 장병들은 유사시 최초 결전부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굳기강을 확립한 가운데 소임완수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하계재해재난 대비 및 장병 건강관리를 통해 무위의 전력손실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PW社 사장 접견

참모총장은 8월 8일, 서울사무소에서 F-16 엔진 제작사인 PW社 Thomas E. Farmer 사장을 접견하고, F-16 수리부속 조기 확보 및 가동률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 이스라엘 공군 군수사령관 접견

참모총장은 8월 3일, 이스라엘 공군 군수사령관 Bortman 준장의 예방을 받고 군수분야 교류 등 공통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참모총장은 이스라엘 측의 항공기 수리부속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 군수분야 인력교류, 수리부품 지원 등 한·이 공간간의 협력이 원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당부와 함께, 이스라엘 공군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산 고등훈련기 T-50의 우수성과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과학화된 교육·훈련 시스템 등을 소개하였다.



◎ 항공소년단 사무총장 감사패 수여

참모총장은 8월 28일, 공군본부를 내방한 항공소년단 이문호(공사 17기, 예비역 공군준장) 사무총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그간 청소년들에게 항공사상을 고취시키고 공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기여해 온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2005년 10월 22일 "2005 서울 에어쇼"에서 창단 발대식을 갖고 출범한 '항공소년단'은 2년이 채 안된 현재 4,000여 명의 단원과 중앙연맹을 비롯한 6개 지방연맹으로 발전하였다. 항공소년단은 공군과 항공우주분야의 인재 육성과 국민들에게 항공사상을 심어주기 위한 설립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항공체험 활동, 항공탐구, 항공레저스포츠 활동, 국제교류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최초로 공군과 함께하는 '항공우주캠프'를 실시하여 청소년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레인보우 프로젝트 에세이 공모 시상

참모총장은 8월 27일, 공군본부 무궁화회관에서 '레인보우 프로젝트 에세이 공모' 수상자 이원철 상병 등 4명 장병들에게 대한 시상식을 주관하고 오찬을 함께 하며 수상 장병들을 격려했다.

참모총장은 수상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에세이 공모에 참여하는 마음처럼 모든 일에 그와 같은 열정을 갖는다면 그 자체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격려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경쟁력있는 공군 건설에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AIR FORCE NEWS

공군은 지금



◎ 제38전투비행전대

공군 최초 '한미 무장사의 날' (Kunsan Weapons Festival) 개최

- 무장장착경연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로 한미 정비요원 간 친목 다져

8월 11일, 오르내리는 항공기 한 대 없이 평화로운 제38전투비행전대의 활주로 한편에서는 한바탕 유쾌한 웃음소리가 번져 나왔다. 한미 무장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고 각자의 기량을 뽐내는 축제의 시간을 가진 것.

이 날의 행사가 더욱 뜻 깊었던 것은 공동 주둔기지 내에서 동일 기종을 운용하고 있는 38전대와 미8비 상호 간의 기술 교류와 우호 증진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서 마련된 자리이기 때문이다. 행사에는 38전대 정비대대 소속 38무장중대, 미8비 소속 35무장중대 및 80무장중대를 비롯,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같은 기지에 순환배치 되어 훈련하고 있는 이탈리아 주둔 미 공군 555무장중대 등 4개 부대 장병과 군 가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이 날 행사의 문을 연 표준 무장장착 경연대회(Load Competition)에서는 4개 부대를 대표하는 무장사들이 3인 1조로 팀을 이루어 MK-82, AIM-9 등 F-16 전투기의 주요 무장을 절차에 입각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장착하는 시합을 벌였다.

이날 대회의 우승 트로피는 신뢰성, 안전성, 장착능력 등의 부문에서 총 3,000점 만점에 3,000점 득점의 완벽한 기량을 선보여 평가관과 주위를 놀라게 한 38전대 무장팀에게 돌아갔다. 특히 평소 3인 1조로 무장을 장착하는 미 공군과 달리 한국 공군 무장팀은 4인 1조가 기본 구성이라는 점에서, 생소한 구성을 딛고 차지한 38전대 무장팀의 우승이 더욱 돋보였다.



2007 September



◎ 제1전투비행단, 3색 빛깔 맞춤형 강연회 가져

7월 31일, 제1전투비행단은 3명의 민간 전문 강사를 동시에 초빙하여 장병들이 선택하여 강연회를 들을 수 있는 「3색 빛깔 맞춤형 강연회」를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1전비에서 실시된 맞춤형 강연회는 「리더십 스피치」, 「웃음 컨설팅」, 「인간관계와 자기표현」이란 주제로 각각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1전비에서는 부서 별, 관심별 맞춤식 강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새로운 강연 형식을 택하게 되었다.



◎ 공군사관생도 선발 1차 시험 실시

2008학년도 제60기 공군사관생도 선발을 위한 1차 시험이 8월 5일 공군사관학교를 비롯한 전국 9개 지역 고등학교에서 실시됐다. 언어 영역(국어)과 외국어 영역(영어), 그리고 수리 영역(수학)으로 나눠 치러진 이날 시험에는, 전국 각지의 많은 학생들이 응시해 공군사관학교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을 보여줬다. 1차 시험 합격자들은 9월 3일부터 28일까지 치러지는 2차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얻게 된다.



◎ 교육사령부-한국통신(KT)과 교육지원 협약 체결

교육사령부 정보통신학교는 한국통신(KT) 동진주 네트워크 서비스센터와 상호 교육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8월 2~3일 이틀간 전자교환기정비 부서관 초급과정 교관 및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국통신 현장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협약 체결은 정보통신학교와 한국통신(KT)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긴밀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두 기관의 상호 우호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정보통신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제5전술공수비행단 면회객 대상 공연 한마당

제5전술공수비행단은 8월 18일 면회실에서 면회객 대상 공연 한마당을 열었다. 이번 공연에서는 5전비 마술동아리와 밴드동아리 플레이어의 멋진 공연이 있었으며 병사들과 면회객들이 함께 참여한 노래경연대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 노래경연대회 입상자들에게는 당일 외출을 허가해 병사 및 면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AIR FORCE NEWS

공군은 지금



F-4D 무사고의 신화는 계속 된다!

- 제11전투비행단 151대대, 8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제11전투비행단 소속 151전투비행대대가 8월 21일 8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했다. 이는 1985년 10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무려 21년 10개월 동안(7,960일)의 무사고 비행기록이며, 거리로 환산하면 약 34,320,000km로 지구를 858여 바퀴나 돌 수 있는 거리로서 지구와 달을 66회 왕복할 수 있는 대기록이다.

151대대는 지난 1969년 7월 10일 국민의 방위성공으로 마련된 F-4D 10대로 창설된 이래 38년간 팬텀기를 운영해온 우리 공군 최초의 팬텀 대대인데, 대대의 이번 기록은 F-4D 항공기로 국내 최고 기록일 뿐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무사고 기록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특히 151대대는 F-4D 팬텀의 탁월한 성능을 바탕으로 1971년 대간첩선 작전, 1998년 동해 출현 러시아 정찰기(IL-20) 식별 및 요격 작전 등 주요 작전에서 활약했을 뿐 아니라 2001년 보라매 사격대회 최우수대대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안전뿐 아니라 작전에서도 공군 최고의 전투비행대대로서 면모를 보여왔다.

이번 기록 수립의 주인공인 김건환 대위(공사 45기, 33세)는 "F-4D 조종사로서 세계 항공 역사에 길이 남을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자랑스럽다"며, "무엇보다 대대의 이번 기록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투기를 완벽하게 정비해준 정비사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정비사들에게 공을 돌렸다. 또한 비행단장 김상경 준장(51세)은 "앞으로도 선배들이 이룩한 전통을 이어나가 F-4D가 명예롭게 퇴역하는 그날까지 무사고 신화가 계속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07 September



◎ 제15헌성비행단, 말아톤 복지재단 장애인 초청행사

8월 10일, 사회복지법인 '말아톤 복지재단' (성남시 분당구 소재) 인솔교사, 장애인 등 30여 명이 제15헌성비행단을 찾아, 공군 소개 동영상을 시청하고 이어 주임원사, 대표병사들과 함께 항공기와 장갑차를 관람하며 소중한 하루를 보냈다. 비행장 투어 중, 한 장애우는 "다른 사람보다 몸은 조금 불편하지만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에 꼭 가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 제16전투비행단, 전투태세검열 대비 교육

8월 8일, 제16전투비행단 기지 대강당에서는 하사 이상 전 간부를 대상으로 작사 전투태세검열을 대비하여 재난통제/기지방어/화생방전하 행동요령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은 특별히 전해숙 강사를 초빙하여 『북한의 군사 훈련 실태』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한 후 장병들로 하여금 훈련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했다.



◎ 제17전투비행단, (주)하이닉스 최첨단 보안시스템 현장체험

8월 16일, 제17전투비행단 보안 담당자들이 청주 흥덕구에 위치한 (주)하이닉스를 방문하여 첨단 보안시스템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각 대대/부서의 보안담당자와 단대표병사를 포함한 10여 명의 방문단은 하이닉스에서 외래인 방문에 따른 출입 통제(검문검색) 절차, 정보통신 장비(카메라폰, 디지털사진기 등) 반입 통제 및 사용 절차, 장비 및 각종 물품의 외부 반출시 통제 시스템 활동 절차 등 체계적인 보안시스템을 직접 체험하였다.



◎ 제19전투비행단, 이발병 양성교육 운영

제19전투비행단은 비전문적인 대대 이발병들의 이발기술을 개선하고자 8월부터 이발 군무원이 직접 강사로 나서 이발병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기지와외역이나 원거리 대대에 근무하고 있는 병사들은 이동시간이나 대기순번 때문에 이발이 어려웠다. 동료병사의 머리손질을 책임지겠다는 양성교육지원자는 무려 1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레바논 장갑차 공수임무를 마치고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 아르빌에 있는 자이툰 부대 장갑차 7대를 레바논에 파병되는 '동명부대' 지원을 위해 '베이루트'까지 공수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해외로 공수하는 경우는 가끔 있었지만, 해외파병지에서 또 다른 파병부대를 지원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그것도 장갑차 7대 대량공수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임무다.

≡ 소령 권판준 | 제58항공수송단

수많은 난제들

금번임무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많았다. 비행경로 선정시 최단경로는 7시간 정도지만 최장경로는 거의 10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9시간 30분의 비행경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시리아였는데, 시리아와 우리나라는 국교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업무협조는 물론이고 영공통과가 허용되지 않았다. 우리가 선택한 경로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시리아를 가운데 두고 우회하여 돌아가는 경로였다.

비행시간만 9시간 30분이지 비행승무원은 항공기 좌석에만 11시간 넘게 앉아 있어야 한다. 비행브리핑 및 경유지 지상업무(각종 행정처리, Flight Plan 제출, 연료보급, 화물 적하역) 등을 고려하면 15시간이 소요된다. 게다가 군용기가 해외영공을 통과할 땐 많은 절차가 필요한데 처음 가는 국가

는 원활한 업무협조 여부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터키가 우리나라와 혈맹이라고는 하지만 군용기에 대한 행정처리는 차원이 다른 문제고, 레바논 또한 아랍 국가이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고 지체될 수도 있기에 우리의 우려와 부담은 커져만 갔다.

또 다른 애로사항은 항공기 성능이었다. C-130H 항공기의 최대 이착륙 중량은 155,000lbs인데, 장갑차(28,000lbs)와 연료, 기타 화물을 포함해서 우리 비행기의 이륙 중량은 154,000lbs에 달했고, 활주로 길이와 온도도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7월의 아르빌은 아침에도 온도는 평균 40℃를 육박한다. 지금껏 최대 이륙 중량으로 40℃ 이상에서 그것도 9,180feet 활주로에서 이륙한 적이 없었다. 이러한 요소는 임무기장에게 많은 부담감으로 작용했고, 혹서기 작전수행에 대한 많은 연구와 토의를 통해 처음 시도하는 비행조작들에 대한 절차를 완성하였다.

역사적인 유럽영공 진입

D-Day는 다가왔다. 현지 시간 새벽 네 시, 요란한 알람소리와 함께 건조한 공기로 인한 고통으로 기침을 몇 번하며 침대를 나왔다. 쿠웨이트 이륙은 여섯 시, 전날 사전 브리핑을 완료했고, 기상 및 정보브리핑을 마치고, 미군 측 전술브리핑 및 승무원 비행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실시한 후 항공기로 이동했다. 이라크 국경을 지나 아르빌 기지로 이동하는 동안 기내에서 아침식사로 샌드위치를 먹었다.

이라크 아르빌 기지에 착륙하여 장갑차를 탑재했다.





복귀비행, 그리고 전략수송기의 필요성

이내 장갑차 무게만큼 연료를 채우고 다시 4시간 30분의 기나긴 복귀비행을 시작해야만 했다. 베이루트 이륙 후 배고픔과 피곤함이 밀려왔고 조종간을 후배 기장에게 이양한 후 컵라면으로 허기를 채우고 잠시 피곤함을 달랬다. 모기지인 쿠웨이트 알리 알 살렘기지에 도착하니, 이제는 모래를 달구던 그 뜨거운 태양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늦은 저녁을 먹고 숙소에 도착하니 벌써 여덟 시가 지나가고 있었고, 피곤함과 땀방울을 샤워로 씻어내고 잠자리에 들었다. 우리는 다음에 있을 임무를 위해 숙면을 취해야만 했다.

이번 임무를 통해서 느낀 점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보유한 항공기의 한계다. 현재 한국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C-130H 허큘리스 항공기는 전술수송기이다. 전술수송기라 하면 한정된 전장 내에서 근거리 공수임무를 하는 수송기이다. 하지만 한국공군의 C-130H 허큘리스 항공기는 가끔씩 전략수송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곧 항공기와 비행승무원의 피로도 증가로 이어진다. 그 와중에도 모든 승무원들은 조금의 이탈과 짜증 없이 본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파병이 계속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수 물자도 더욱 많아질 것이며 그 모든 것을 전술수송기로는 힘겨울 것이기에 미공군의 C-17 글로브마스터 같은 전략수송기가 절실하게 느껴진다.

이제 새롭게 파병된 레바논의 '동명부대'는 우리가 공수한 장갑차를 타고 수많은 기대와 위험 속에서 UN의 평화착업무를 해 나갈 것이다. '가제는 게 편'이라고 했던가. 그들의 안녕과 무사복귀를 기원한다. ㉫

이라크 아르빌 관제탑에서 유선으로 해당 이라크 관제기구와 연락하여 비행계획허가서를 접수하고 지상 작업이 일찍 마무리 되어 계획된 시간보다 30분 먼저 이륙을 하였고 터키 국경으로 향하고 있었다. 기상도 좋고 항공기 상태도 양호했으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터키 쪽에서 비행계획서 접수가 되지 않아 터키 영공을 통과할 수 없다는 통보가 왔다. 지금껏 내가 3,500여 시간 되는 비행시간 동안 비행계획허가서를 받고 이륙해서 이런 통보를 받기는 처음이었다. 하는 수 없이 우리는 위성전화로 쿠웨이트 다이만 부대에 전화로 현 상태를 통보했고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해외비행을 수없이 해왔지만 이때처럼 연료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50여 분을 대기하다 드디어 터키 영공진입이 허가되었다. 나로서는 실로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유럽 땅과 지중해를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드디어 레바논 영공에 진입하여 베이루트 도시가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쿠웨이트와 흡사해 보였지만 인구밀도가 높고 역사가 다소 깊어보였다. 도시 동쪽부터 남쪽까지 1,000m의 높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고 산 중턱까지 집들이 바둑판처럼 배열되어 있었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없이 착륙할 수 있었고 주기를 하고 비행을 마치게 되었다.

시동을 끄고 항공기 문을 나오는 순간 지중해의 시원한 공기가 들어왔고 쿠웨이트에서 뜨거운 열기만 느꼈던 우리는 오랜 비행의 피곤함도 잊은 채 더할 나위 없이 상쾌함을 느꼈다. 항공기에 묶여있던 장갑차가 나오는 순간, 지게꾼이 무거운 지계를 벗어놓듯 항공기가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다.



지상 최전방의 공군인들

(원제 : UNCOMMON AIRMEN)

- 미공군 합동최종공격통제장교

원문 미 공군 (Airmen) Magazine(글 Rich Lamance)
번역 중위 곽준엽 |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텍사스 주의 후드요새에서 합동최종공격통제장교들이 받는 훈련 중에는 엄호기술도 포함되어 있다. 이 기지의 제3항공지원작전단의 장병들은 육군 1기갑사단과 4보병사단의 육군 35,000명을 위한 근접항공지원작전의 중추가 된다.

30킬로그램의 군장, M-4 총기, 그리고 9mm 권총을 지니고 조밀하게 늘어져있는 콘크리트 건물 사이 골목길을 뚫고 나가는 세인 파머 하사의 발걸음은 힘겹기만 하다. 거기에 끊이지 않는 박격포탄과 대포공격은 전진이동을 거의 불가능하게 한다.

2004년 여름 이라크의 나자프에서 파머 하사와 그의 육군 보병부대는 종교극우지도자 막타다 알 사드르가 이끄는 마디군과 교전 중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공동묘지를 뒤편에, 그

리고 이슬람권에서 매우 신성하게 생각 하는 이맘 알리 성전을 앞에 두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두 역사적인 유적들을 손상하지 않고 적의 공격을 격퇴할지 고심 중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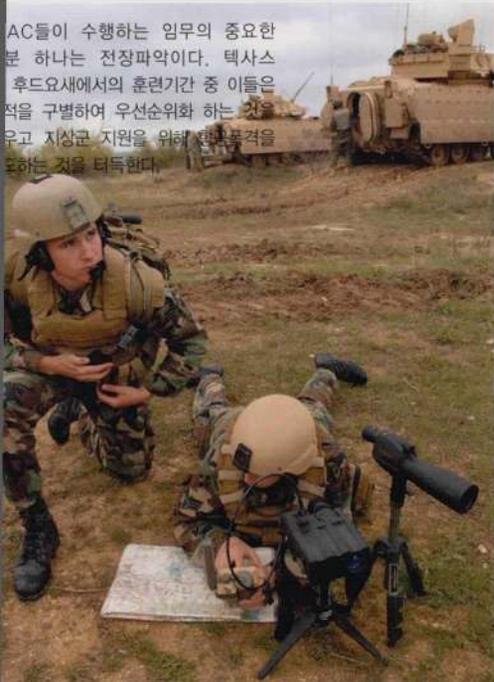
이때 바로 파머 하사와 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몇몇 공군인들이 작전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마디 박격포병력 위에 정확히 떨어진 500 파운드 폭탄은 주변의 건물에는 피해를 입히지 않고 적의 공격을 깨끗이 잠재웠다. 파머 하사는 미 공군의 합동최종공격통제장교(Joint Terminal Attack Controller: JTAC)로서 전장에서 지상군 지휘관의 요구사항을 상공에서 폭격을 하게 될 조종사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전술공중통제반(TACP)과 합동최종공격통제장교(JTAC)
텍사스 힐 카운티 북부의 넓은 황야에 위치한 육군 후드 요새(Ford Hood)에는 파머 하사 외 약 300명으로 이루어진 전술공중통제반(Tactical Air Control Party: TACP)이 있다. 총 35,000여 명에 달하는 본 요새의 1기갑사단 및 4보병사단 장병들과 같이 움직이는 이들은 공군이 보유한 전체 1,500여 명의 전술공중통제반의 5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

제3항공지원작전단 소속인 이들은 공군의 보편적 활동범위 밖에서 활동한다. 그렇다고 육군에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다. 부단장인 마이클 데니스 중령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들이야말로 커튼 뒤의 영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육군은 이들이 자신들과 함께 전장에 있다는 것을 모르지요. 또 대부분의 공군인들도 이들의 활동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합니다. 부대원들이 나누는 전우애는 정말 끈끈합니다. 전술공중통제반원들은 6개월을 이라크에서 보내고 돌아와 6개월을 본토에

AC들이 수행하는 임무의 중요한 본 하나는 전장파악이다. 텍사스 후드요새에서의 훈련기간 중 이들은 적을 구별하여 우선순위를 하는 것을 육군 지상군 지원을 위해 항공폭격을 조하는 것을 터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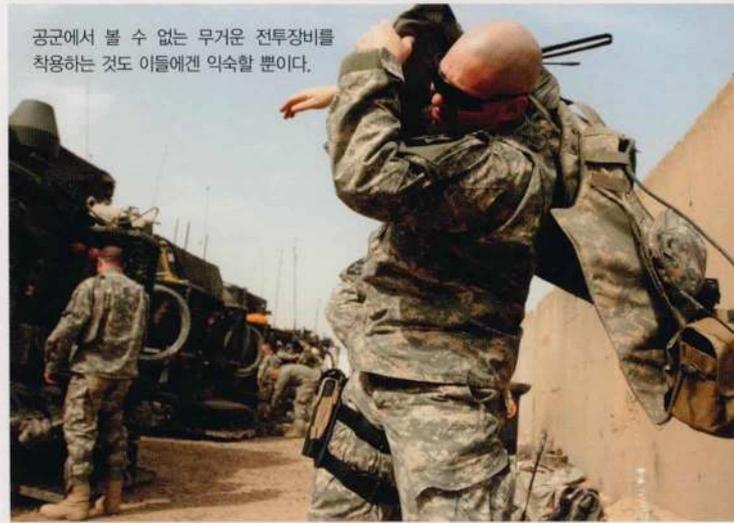
서 지낸 뒤 또다시 이라크로 6개월짜리 파병을 갑니다. 아무 말 않고 묵묵히 군장을 짊어지고 나가는 참 군인들이지요.”

전방항공통제 임무는 총 다섯 개의 작전부대에 의해 이루어진다. 후드 요새의 제11, 제9, 그리고 제712항공지원작전대대, 캔사스 주 라일리 요새(Fort Riley)의 제10대대, 또 마지막으로 콜로라도 카슨 요새(Fort Carson)의 제13대대가 있다. 이 부대들은 TACP와 JTAC들 뿐만이 아니라 통신정비사, 차량정비사, 또 육군 여단, 사단, 군단급에서 공군연락반을 운용하는 행정담당 장병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 부대는 지정된 지상군 부대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는다.

작전본부장 데이빗 스테이브 중령은 설명한다. “각 사단마다 사령부와 연계되어 있는 공군 공중작전지원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대는 육군 사단 내의 전투여단과 연계되어 있는 편대들로 이루어져 있지요. 또다시 각 편대는 더 작은 단위의 TACP 부대로 이루어져 각 부대가 육군 대대와 짝지어 함께 활동합니다.” 그들은 작계는 육군 중대 단위 부대와 같이 활동하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최전선에 투입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투작전 중 초병경계, 호송 또는 무인항공기 감독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전술공중통제반의 가장 기본적인 레벨은 무선통신 작동 유지요원(Radio Operator Maintainer and Driver: ROMAD)이다. 지상에서 공중폭격을 유도 및 지원하는 것은 제2차대전 때부터 사용해오던 전술이지만, 오늘날의 발달된 위성 및 디지털 통신기술로 인해 전술공중통제반원들은 오히려 인공적인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무선통신 작동유지요원으로서 저의 일은 각 장비의 기능을 파악하고, 공중의 조종사와 지상의 육군지원관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최적 주파수를 찾아 프로그램시키는 데 있습니다. 정밀한 폭격을 위해서 저는 각종 컴퓨터 및 전자기기, 그리고 표적체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거기에는 교전 중 총을 쏘는 법, 지형지세를 이용하여 전술을 펴는 법, 그리고 육박전까지 다 배워야 하지요.” 제11항공지원작전대대 TACP요원인 제이슨 맥코이 상병은 말한다.

전술공중통제반에서 한단계 나아간 개념이 합동최종공격통제장교(JTAC)이다. 우수요원들로만 이루어진 이들은 2명이 한 조로 활동하는 공중통제팀에서 실제로 항공기 내의 파일럿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11공중지원작전대대 JTAC 제임스 바커 하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합동최종공격통제장교가 되는 것은 기술교육을 마치고 전술공중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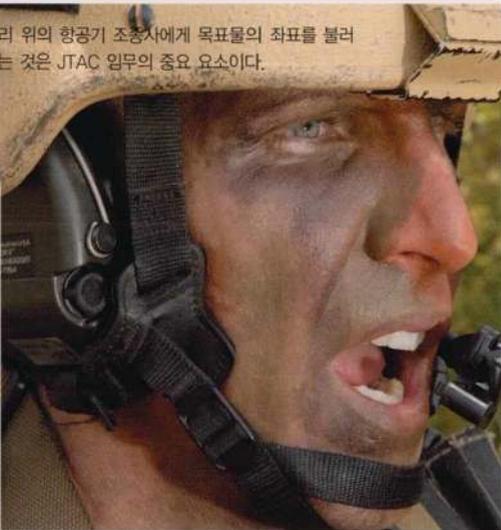
반 첫 임무를 맡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장비를 다루는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시험이 있고 또한 일년 동안 임무준비태세를 유지해야만 JTAC로 승격하는 자격을 얻을 수 있지요.”

일등병에서 시작하는 첫 교육과정은 6개월이 소요된다. “6개월 동안 네 차례의 모의통제훈련, 네 차례의 실제 통제훈련,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마친 후 상병이 되면 비로소 기술학교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술학교과정은 네바다 주의 넬리스 공군기지(Nellis AFB)에서 3주간 이루어지며 네 번의 추가적 통제임무과제를 완수한 후 육군부대와 같이 지내며 일하는 방법도 배운다. “항공기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우게 되지요. 부대로 돌아가서 추가적인 통제실습교육과정을 밟아 1년 반 후에야 JTAC가 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위성통신장비조작이나 복잡한 통제절차숙지는 TACP와 JTAC들이 받는 훈련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지상군과 같이 작전에 투입되어 도심지형훈련을 받으며 건물에 숨어있는 적군을 진압하는 훈련도 받는다. 이에 따라 육군화기전문가를 초청해 9mm 권총이나 M-4 소총에 대한 좀 더 깊은 지식을 배우기도 하고, 또한 육군부대와 야전에서 서로 협조하며 작전에 임하는 것도 배운다.

그들의 육군 파트너들처럼 전술공중통제반원들은 매일 아침을 팔굽혀펴기와 체조, 그리고 6km 정도의 조깅으로 이루어진 체력단련으로 시작한다. 제9항공지원작전대대 소속 데이비드 갈린도 하사는 말한다. “체력단련을 하지 않는 날에는 30kg짜리 군장을 매고 6km를 행군합니다. 후드요새에서 저희의 일과는 대부분 훈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 위의 항공기 조종사에게 목표물의 좌표를 불러주는 것은 JTAC 임무의 중요 요소이다.

소화기전술, 순찰 기술, 무선통신절차, 그리고 근거리항공지원 계획 및 시행방법에 대해 총체적으로 훈련하지요. 불과 1km도 안 되는 거리에서 A-10기가 목표물에 30mm 포탄을 쏘

아 붓는 것을 보는 것처럼 통쾌한 일도 없습니다.”

실제 전투투입 외에 TACP 요원들이 거치는 가장 힘든 경험은 캘리포니아 주 어윈 요새(Fort Irwin)의 육군훈련본부의 험난한 지형지세에서의 훈련이다. 모하비 사막에 위치한 이곳에서, 육/공군 장병들은 실제전장과 같은 환경 속에서 전투모의훈련에 임한다. 제11항공지원작전대대 마틴 콜롬베 상병은 말한다. “저희는 호송임무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항공기가 지상군의 이동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정찰을 하게 되지요. 잠재적 위협이 숨어있을 수 있으니까요. 마을에 도착한 후 인근 건물에 육군부대가 안전지역을 확보합니다. 그들과 같이 행동하면서 저는 항공기와 교신하면서 지상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힘겹고 실전적 훈련도 실제 전투경험에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TACP들의 잦은 실전투입 주기 때문에 이들의 훈련장은 항상 서로 모험담을 교환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돌변한다. TACP요원들은 평균 6개월에 한번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최전선으로 파병된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친다. “아프가니스탄의 험한 산세를 타고 작전지역으로 이동하는 지상군부대가 있다면 TACP요원들이 꼭 함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지요. 또 모든 이라크 내의 주요 전투에는 TACP가 참여하고 있을 겁니다. 지상군 화력이 모자랄 때 근접항공지원을 유도하여 우군살상 없이 적을 정밀폭격합니다. 사실 적에게는 TACP가 전장에서 가장 파괴적인 존재입니다.”

전술공중통제반의 환경

TACP들은 대부분의 공군인들이, 심지어는 지상군 병사들도 겪지 못하는 환경에서 근무할 때가 많다. 브라이언 타텀 병장은 말했다. “30일 동안 한번도 샤워를 못한 적도 있었죠.”

임무수행을 위해 기지 밖으로 나갈 때면 그들은 보호의와 헬멧, 그리고 군장을 착용하고 M-4 소총, 9mm 권총, 또 무선장비를 든 채 험비차량에 탑승한다. 콜롬베 상병은 설명한다. “육군들이 순찰임무를 나갈 때 주로 저희도 같이 가게 됩니다. 10명 내지 15명의 병사들과 같이 행동하게 되지요. 항상 긴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순찰을 할 때 저의 역할은 JTAC가 항공기를 통제하는 동안 그를 엄호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훈련, 자주 하달되는 임무, 그리고 긴 파병이 그들에게 스트레스의 요소가 된다. 하지만 더 큰 원인은 따로 있다. 그들에게서 가장 가까운 공군기지가 세 시간이나 떨어진 텍사스의 다이애스 공군기지(Dyess AFB)이기 때문에 그들은 타 공군인들과의 교감이 거의 없다. 바커 하사는 웃으며 말했다. “공군기지에 갈 때마다 제 아내는 거기 있는 장병들이 다 TACP처럼 보이고 행동할 줄 생각합니다. 한번도 공군기지에 살며 공군장병들을 접하지 못했으니 그럴 수밖에요. 그녀는 육군문화밖에 모르지요.”

콜롬베 상병은 일과 가족생활을 분리하며 생활한다. “제 생각은 이래요. 파병되어서 전투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른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야 되지요? 거꾸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 같아요. 전장에서의 끔찍함으로 인해 가슴속에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을 가족에게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얘기만 할 시간도 모자라니까요.”

후드요새에서의 훈련이 끝나면 그들은 공군기지로 돌아온다. 하지만 곧 그들은 다시 어딘가의 육군기지로 떠날 것이다. 이태리의 비첸자, 뉴욕의 드럼요새, 조지아 주의 스투어트요새, 알래스카의 리차드슨요새, 또는 한국의 캠프 케이시 등 세계 어디든지 접전상황이 있는 곳이면 이들 TACP가 달려갈 것이다. ㉞



안드레 앤드루스 상병(右)이 전장의 목표물을 살피는 동안 크리스토퍼 아발로스 병장(左)은 모의 공중폭격을 연습한다. 이것이 TACP요원들의 주 임무이다.

PREVIEW

객원기자 이예진

경고 : 웃다가 기절할 수 있습니다

신나는 거짓말, 연극 <라이어>



웃음이 필요한 당신에게 대학로가 파워풀한 엔돌핀을 선보인다.

<라이어>는 대학로에서 공연되고 있는 개그콘서트보다 더 웃기는 연극이다. 코미디언 출신의 배우도, 화려한 세트나 음향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지만 꼬리를 무는 거짓말이 웃긴 상황을 만든다. 관객들은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

이 박장대소 연극은 한 연극을 두 번 본 관객이 전체 관객의 40%나 될 만큼 대학로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그 명성만큼이나 라이어는 대학로에서만 3개의 시리즈물이 동시에 공연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연극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시리즈물은 라이어 2탄, <그 후 20년>이다. 이미 1탄에서 두 집 살림을 차린 택시운전사 존 스미스의 20년 후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서로 다른 아내에게서 태어난 두 자녀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다. 결국 두 자녀인 비키와 케빈으로 인해 스미스의 이중생활이 밝혀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스미스와 스미스의 절친한 친구 스탠리가 이중생활이 탄로날까봐 벌이게 되는 거짓말이 한바탕 폭소를 자아낸다.

연극이 끝난 후 10여 명의 등장인물과 직접 무대에서 사진을 찍는 것 또한 연극 라이어에 서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다.

기간 2007년 3월 14일 ~ OPEN RUN

장소 서울 대학로 우리극장

문의 (02) 747-2050



HOT & SEXY

올 가을 뮤지컬이 말하려는 것, 뮤지컬 <시카고>



세상에 이렇게 섹시한 뮤지컬이 또 있을까?!

이미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 등 6개 부문을 석권한 뮤지컬 영화 <시카고>가 이번엔 스크린이 아닌 무대 나들이를 갖는다. 최정원, 옥주현, 성기윤 등 캐스팅만으로도 화려한 시카고, 무엇이 시카고를 섹시하게 하는가.

시카고는 사실 미국의 1920년대 이야기이다. '살인, 욕망, 부패, 폭력, 착취, 간통, 배신'을 선전문구로 내세운 시카고는 저널리즘에 대한 비판, 미 형법 제도의 모순, 남성중심의 도덕관과 황금만능주의 등을 농염한 재즈선율에 녹여냈다. 큰 스케일의 세트도 현란한 조명도 볼 수 없지만 뮤지컬 시카고는 관능적인 춤과 노래, 파격적인 의상으로 승부한다.

여기에 재미까지 더했다. 뮤지컬의 흥을 이끄는 사회 풍자적 코미디는 춤과 노래만큼이나 시카고를 매력적이게 한다.

밴드가 무대 중심의 거대하고 계단식으로 생긴 배심원석을 차지하는 점도 독특하다. 뮤지컬 시카고의 음악은 이미 미국 그래미 어워드에서 '최고 뮤지컬 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다.

기간 2007년 9월 18일 ~ 30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02) 577-1987



우주시대의 고층대기

☞ 정종균 선임연구원 |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측지연구부 지구관측연구그룹

지구의 대기는 온도, 밀도, 그리고 구성 성분에 따라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그리고 이온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류권은 대부분의 기상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지표면에서 고도 약 10km까지의 영역이다. 성층권(10~50km)은 인간에 매우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일상생활에서 오존의 증가는 우리의 건강에 나쁘지만 성층권의 오존은 피부암을 일으키는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고마운 양면성을 갖는다. 50km부터 약 120km까지는 중간권으로서 평균 온도가 약 200K 내외로서 지구상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지역이다. 이에 비해 열권(120~800km)의 온도는 1,000K 내외로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며, 지자기 폭풍 발생 시에 2,000K가 넘기도 한다. 이온권은 전자밀도에 따라 D, E, F₁, F₂ 층으로 구분하며, 중간권 및 열권과 같은 고도에 존재하지만 전자와 이온과 같은 플라스마 상태의 대기권을 지칭한다. <그림 1>에 지구대기권의 고도 분포와 관련한 현상 등이 간단히 도식되었다. 밤하늘에 종종 떨어지는 별뿔별, 즉 유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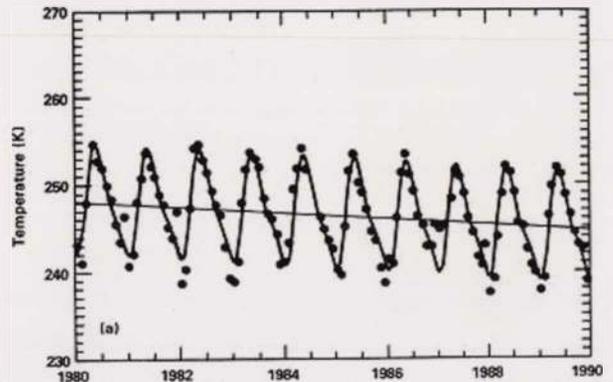


그림 2. NOAA TIROS 자료에 나타난 중간권 온도의 장기변화(Aiken 1991년 발표자료). 중간권의 온도는 10년간 ~3K의 감소를 보인다. 이에 비해 대류권의 온도는 100년간 ~0.5K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도 80km 부근에서 대부분이 타 버리는데, 이때 금속 이온이 발생하여 이온권 E층의 주요 성분이 된다.

지구의 대기권 중에서 중간권, 열권, 그리고 이온권을 고층대기라고 정의하며, 전파의 이온권 반사를 이용한 마르코니의 대서양 횡단 무선통신의 성공을 기점으로 관련 분야가 발전하게 되었다. 고층대기는 태양 자외선과 X-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11년 주기 태양활동에 따른 직접 변화를 겪으며 태양풍의 변화로 촉발된 지자기 폭풍은 인공위성 궤도변이나 고주파 통신의 두절 등의 영향을 일으킨다. 2011년을 정점으로 태양활동은 최대기에 이르며 이에 따른 우주항법, 통신, 전기, 군사 분야에서의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감시가 요구된다. 이에 근간이 되는 중간권, 열권, 그리고 이온권에 대한 몇 가지 고층대기 특성에 대해 간략히 말하고자 한다.

고층대기의 특성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대류권의 온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중간권은 이와 반대로 기온이 하강하고 있으며 그 냉각화 정도가 하층대기의 온난화보다 더욱 분명하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그림 2). 이는 전 지구적 에너지 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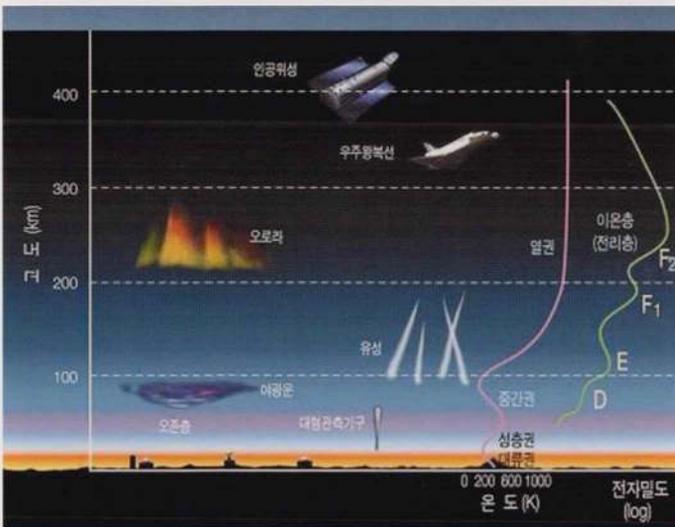


그림 1. 지구대기 및 이온권 구조. 고층대기에서 운영되는 저궤도 위성이나 우주왕복선은 우리가 이미 우주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그림 3. 남극세종과학기지 고층대기 관측소. 1997년과 2000년, 2년 동안 필자가 상주하며 연구하던 공간이다. 요즘과 같이 무더운 여름이면 종종 그 시절이 떠오르곤 한다.

증가하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그리고 성층권 오존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이러한 중간권 환경의 변화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를 분석, 예측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척도가 된다. 중간권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지상의 적외선 분광관측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그림 3>의 남극세종과학기지 고층대기 관측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앞으로 이곳에 중간권뿐만 아니라 이온권 감시를 위한 고정밀 GPS 수신기와 고층대기 레이더가 설치되어 남극권에 대한 종합관측소 구축이 계획되고 있다.

대기 최상부층인 열권의 밀도는 다른 대기권에 비해서 매우 희박하지만 행성 간 공간의 밀도보다는 매우 높으며 온도에 따라 크게 변한다. 열권의 밀도는 고도 500km 이내의 저궤도 인공위성의 궤도변이를 가져오는 대기항력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하다. 저궤도 인공위성의 분사연료가 대부분 궤도 변이를 보정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열권 밀도 변화 요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예측할 경우 효율적인 분사연료의 사용은 저궤도 인공위성의 운영에 필수적이다. 열권의 밀도는 인공위성에 부착된 가속계에 의해 직접적으로 획득될 수 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레이저 추적이나 GPS 신호를 통한 인공위성의 정밀궤도 결정을 통해 계산된다. 직·간접적으로 얻어진 열권의 밀도와 태양 극자외선 플럭스 및 여러 가지 물리적 요소와 결합하여 열권 밀도 예측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열권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현상은 오로라이다(그림 4). 오로라는 지구 자기권에서 유입되는 전자가 고층대기 입자와 충돌하면서 발생한다. 따라서 지구 자기권의 전

자의 유입이 가장 큰 고위도 지역인 알래스카, 노르웨이, 스웨덴, 남극 등에서 발생한다. 오로라가 발생한 하늘에서는 우주의 전자가 무수히 고층대기로 떨어진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GPS 신호의 역이용

최근 들어 많은 자동차에 GPS 수신기를 장착하여 정확한 길 안내를 받는 모습이 일상화되었으며, 초창기 군사용으로 개발된 GPS가 이제는 우리의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있다. 사실 고층대기 주요 감시 장비인 레이더나 로켓이 2차 세계 대전 동안 개발된 것에 바탕을 둔 것임을 감안하면 고층대기와 군사와의 밀접한 관계는 놀라운 사실도 아니다. 고도 약 20,000km 상공에 24개로 구성된 GPS 위성에서 송출되는



그림 4. 지구 자기권으로부터 유입된 전자가 고층대기의 입자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오로라. 오로라가 일정한 모양을 나타내는 것은 전자가 지구 자기장을 따라 유입되기 때문이다. 고층대기 입자의 종류와 전자의 에너지에 따라 오로라의 색상이 결정된다.



항공소년단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공소년단 자원봉사단 가입안내

■ 자원봉사 활동분야

- 장비 및 시설 지원 활동
- 교육활동
 - 항공이론 및 역사
 - 항공기능(RC, 열기구, 행 · 패러글라이더 등)
 - 조종사 비행 경험담
 - 레크리에이션
 - 해양훈련
 - 정신교육(심성수련)
- 행사 인력 지원
- 기 타

■ 자원봉사 활동지역 : 전국

■ 자원봉사단 모집기간 : 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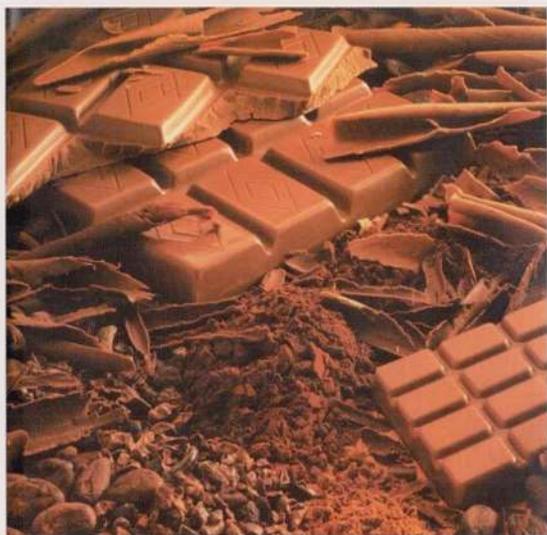
■ 항공소년단 자원봉사단이 되려면

항공소년단 홈페이지(www.yfk.or.kr)에서 '항공소년단 자원봉사단' 회원가입→활동이 있을 시 이메일 또는 개인 연락처로 연락→봉사활동



한국항공소년단
YOUNG FALCONS OF KOREA

당신이 읽는 책이 당신이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 안에 든 초콜릿

“Life is like a box of chocolates.
You never know what you’re gonna get.”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포레스트 검프 Forrest Gump>의 대사이지요. 초콜릿이 가득 든 상자 안에 손을 넣어 초콜릿을 집을 때 어떤 초콜릿이 집힐지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인생을 초콜릿 상자에 비유한 명대사입니다. 어떤 일에서든 최선을 다하길 바라며 검프의 어머니가 어린 검프에게 들려주던 말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명대사의 메시지를 뒤늦게 본 <초콜릿 Chocolate>을 보면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활기와 사랑을 되찾아준 <초콜릿>의 초콜릿

프랑스의 보수적인 어느 마을에 신비의 여인 비안느 줄리엣 비노쉬가 나타나 초콜릿 가게를 엽니다. 그런데 그녀만의 조리법으로 만드는 초콜릿은 너무나 신비한 마력을 발휘하기에 마을 사람들을 하나같이 사랑과 정열에 빠져들게 하지요. 노인들은 활기를 찾아 뜨거운 사랑을 갈구합니다. 애정전선에 먹구름이 낀 연인들은 불타는 사랑 속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루도 불화가 끊일 날 없는 이웃들은 화해를 합니다. 타지에서 온 이방인이 만든 것이기에 초콜릿 자체에 맹목적으로 반감을 가졌던 마을 주민들이 초콜릿 덕분에 인생의 새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줄거리인데, 조니 뎀의 매력적인 연기도 볼 수 있는 걸작이지요. 노인에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어떤 초콜릿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다채롭게 변모돼가는지를 지켜보는 재미가 아주 크지요.



뿌린 대로 거둔다 VS 마신 대로 거둔다

<초콜릿>을 보는 동안 TV에서 본 CF가 연상되더군요. 어떤 초콜릿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어떤 걸 먹는가에 따라 사람의 몸이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잘 압축해 보여주는 CF이지요.

“아씨, 밀크 드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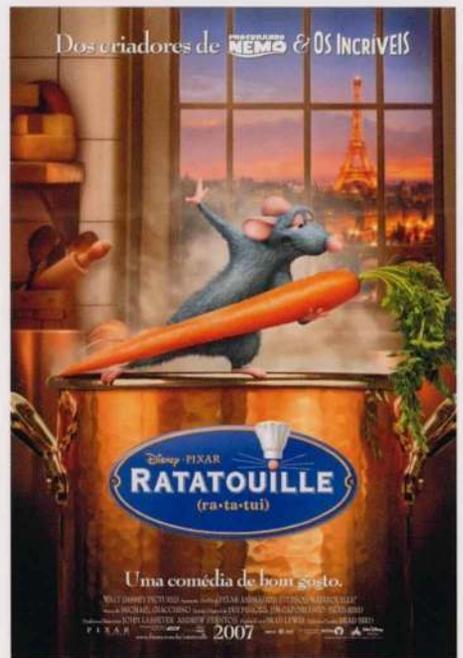
향단이가 우유를 받쳐 들고 그네 타는 춘향이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춘향이의 반응이 도무지 뜻밖입니다. “너나 마서라”, “안 마신대도”, “됐거든” 번번이 이처럼 냉랭한 반응으로 퇴짜를 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몇 년 뒤,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하여 금의환향합니다. 춘향이가 코맹맹이 소리로 ‘몽룡 오빠~’를 외치며 달려가 품에 안기려는 찰라 이몽룡은 향단을 얼싸안습니다. 우유 덕분에 얼굴이 뽀얗게 예뻐진 향단이의 얼굴이 흥조가 되더군요. 모 우유회사의 TV CF 내용인데요, 끝자락에 나오는 광고 문구인 ‘마신 대로 거두리랴’를 보면서 저는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와 월트 디즈니가 만든 애니메이션 <라따뚜이 Ratatouille>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내 존재를 결정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를 패러디한 ‘마신 대로 거두리랴’는 다음의 영어 표현과 메시지가 닿아있지요.

당신이 먹는 게 당신이다.
You are what you e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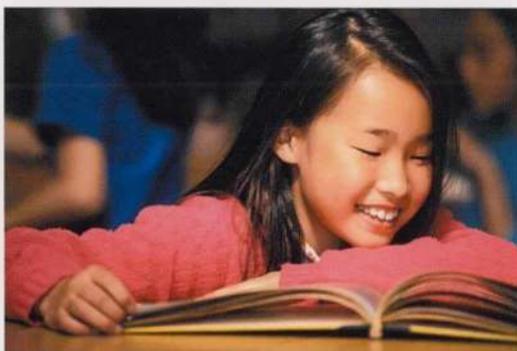
미키 마우스의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라따뚜이>의 주인공은 레미입니다. 레미는 일류 요리사를 꿈꾸는 생쥐이지요. 인간의 음식을 주워 먹거나 훔쳐 먹는 게 생쥐의 운명일진대, 레미는 좀 특별합니다. 다른 쥐에게는 없는 절대 미각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쥐는 쥐답게 살아야 한다’는 부모의 훈계가 귀에 들어올 틈이 없는 레미는 파리의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소년과 단짝을 이루지요. 그리곤 기막힌 요리를 만들어내어 트집 잡기 좋아하는 음식 평론가들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듭니다. ‘누구나 요리사가 될 수 있다’며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자의식을 가진 레미의 대사 중 유독 우리의 귀를 사로잡는 게 있지요. “내가 먹는 음식이 나의 존재를 결정한다.”



당신이 읽는 책이 당신이다

이 명대사를 가장 잘 압축하는 영어 표현이 저는 You're what you eat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라따뚜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사로 표현되고 있지요.

If you are what you eat, then I only want to eat the good stuff.
만약 내가 먹는 음식이 나의 존재를 결정한다면 난 좋은 것으로만 먹고 싶어.



그렇다면 이 표현에서 음식 대신에 '마음의 양식'인 책을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독자가 세계질 중 책을 가장 안 읽는다는 독서의 계절이 곧 오니까요. 우리 다 같이 책 읽어서 이 가을엔 책잡히지 맙시다. (A)

You are what you read!
당신이 읽는 책이 당신입니다!

이미도
외화번역가·저술가·출판인
(이미도의 등 푸른 활어영어),
<영화백가사전 영어백과사전> 지음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전망 2

- 차기전투기 대상기종과 향후 전망



클 중령 김현곤 | 일본항공자위대 AWC 과정

※ 지난 호에서는 항자대의 전투기 구매와 일본의 항공산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일본의 차기전투기 대상기종과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리포트를 마무리 합니다.

차기전투기 대상기종

2004년 12월에 확정된 현재의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05~2009)에 차기전투기 7대 구매를 포함하여 F-2 구매 22대, F-15 성능개량 26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F-X 후보기종으로 F-22를 포함하여 F-15FX, F/A-18E/F, F-35, 라팔, 유로파이터 등 6개 기종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2월 14일자 시사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의 질문서에 응한 기종은 F-15FX, F/A-18E/F, 유로파이터 3개 기종이었다. 방위성이 항공기 제작회사에 보낸 질문서는 제안요청서(RFP)와는 다른 성격으로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7년 4월 21일자 공동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F-22와 F-15FX의 혼합 채택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당 250억엔이라는 F-22 구매에 따른 예산

의 압박과 미국의 F-22 수출금지법의 개정이 불투명한 데 대한 원인으로 해석된다. 즉, 소요대수의 확보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점과 F-22 수출허가 이전까지에 대한 연결사업으로 F-15FX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2007년 6월 4일자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금년 4월 27일에 미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항자대의 차기전투기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무기수출금지법에 따라 F-22가 제한받고 있는 데에 따른 무기수출금지법의 해제를 요청한 것일 수도 있다.

현재 미국정부로서는 F-22 생산대수의 감소로 인하여 대당 생산단가가 올라간 만큼 생산단가를 낮추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미국은 파트너로 신뢰할 만한 국가에 대하여 F-22를 수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생산단가를 낮추고자 시도를 한 바가 있다. 이를 위해 2006년도 말에 일본, 영국, 호주에 대한 F-22 수출허가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美상원에서 부결된 상태이다. 또한 일본의 F-22 구매는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미국 내 친중파는 F-22의 대일판매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2007년 6월 7일, 나고야시에 있는 미쓰비시 항공우주시스템제작소 연수 시 F-22와 유사한 모형(1/2 사이즈)을 보았다. 외국인에게는 공개되지 않아 자세히 볼 수 없었지만 실제로 방위성 예하의 기술본부 지시에 의해 2000~2007년까지 F-22에 관하여 연구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2010년부터 비행측정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시제기의 제작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 시험은 시제기를 만들기 전의 테스트로 판단된다. 또한 공장장과의 면담에서 F-22급의 항공기를 일본의 기술로 만들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향후 전망

현재 항자대의 F-4EJ는 도입된 지 40년이 도래함에 따라 도태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그들의 입장에서는 주변국 공군에 비하여 F-15J가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주변국보다도 전투기의 성능우위에 빨리 올라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일본의 차기전투기의 도입방법은 우선적으로 미일동맹관계를 중시하는 정책에 따라 미제 이외의 전투기 구매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① F-15FX + F-22(또는 F-35) 도입, ② 일본 국내연구개발로 압축된다.

현재 일본이 중기방위력정비계획대로 전력을 구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2008년까지 기종 선정을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항자대의 항공기 도입은 2011년 이후나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F-22 대외판매를 허가한다면 일본의 차기전투기사업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F-22 대일판매는 동북아의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북한을 오히려 자극할 수 있고, 당장 한국이나 중국에 대한 자극을 바라지도 않을 것이다.

한편 미쓰비시중공업은 물밑에서 차기전투기의 국내개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F-22 대일판매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최신 기술의 노출을 바라지 않는 미 정부의 규제를 받아 과거의 전투기생산과 같이



유로파이터



F/A-18E/F



라팔



라이선스 생산을 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아울러 F-22 전투기 특성상 일본이 개발한 AAM-4(AIM-120급), AAM-5(AIM-9X급)의 무장을 탑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F-22를 미국으로부터 직접 도입하고, 우려하던 문제들이 현실화 된다면 지난 50여 년 간 지속시켜 온 미쓰비시중공업의 전투기사업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미쓰비시중공업은 미국의 F-22 대일판매를 내심 바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쓰비시중공업은 F-2 최종호기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약 90인승 규모의 소형여객기를 2003년부터 개발하고 있다. 이는 2012년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양산계획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일본정부의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분야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국내 항공기 산업을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표면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은 일본의 차기전투기 개발을 위한 명분쌓기인지도 모른다.

일본의 차기전투기 선정은 국내·외적으로 정치, 산업, 군사력유지 문제 등 많은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다. 어떡하든 일본의 차기전투기 선정결과는 동북아의 군사력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항자대가 운영하는 전투기, 방공미사일, 조기경보기 등 전력규모와 국내기반을 중심으로 한 전력의 조달체계를 들여다 본다면 겉으로 보이는 전력 이상의 월등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북한을 핑계로 최근 10여 년 이상을 전력증강에 역점을 두어 왔다. 항자대의 수준은 전투기의 양과 성능뿐 아니라 패트리엇 3, E-767, AAM-4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AM-5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방위산업체가 튼튼하다는 것은 또 하나의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인들의 국민성을 들여다보면 때에 따라서 극단적 성향이 매우 강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들이 역사의 반복과정에서 잘못 맞아떨어질 때 커다란 위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며, 일본의 차세대전투기 선정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이유일 것이다. ㉞

참고자료

1. 일본 국방백서(2006년 8월 1일)
2. 방위핸드북(2007년 3월 31일)
3. <http://ja.wikipedia.org/wiki/F-22>
4. 아사히신문 '07년 6월 4일/6월 17일자
5. 방위산업체 견학자료(미쓰비시중공업, 시마즈제작소)

매미를 보며

부산 서구 아미동.
 7년을 지하 단칸 월세방서
 이제 겨우 제대로 된 집으로
 이사했다고,
 비록 내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세라고
 행복해하던 형환이네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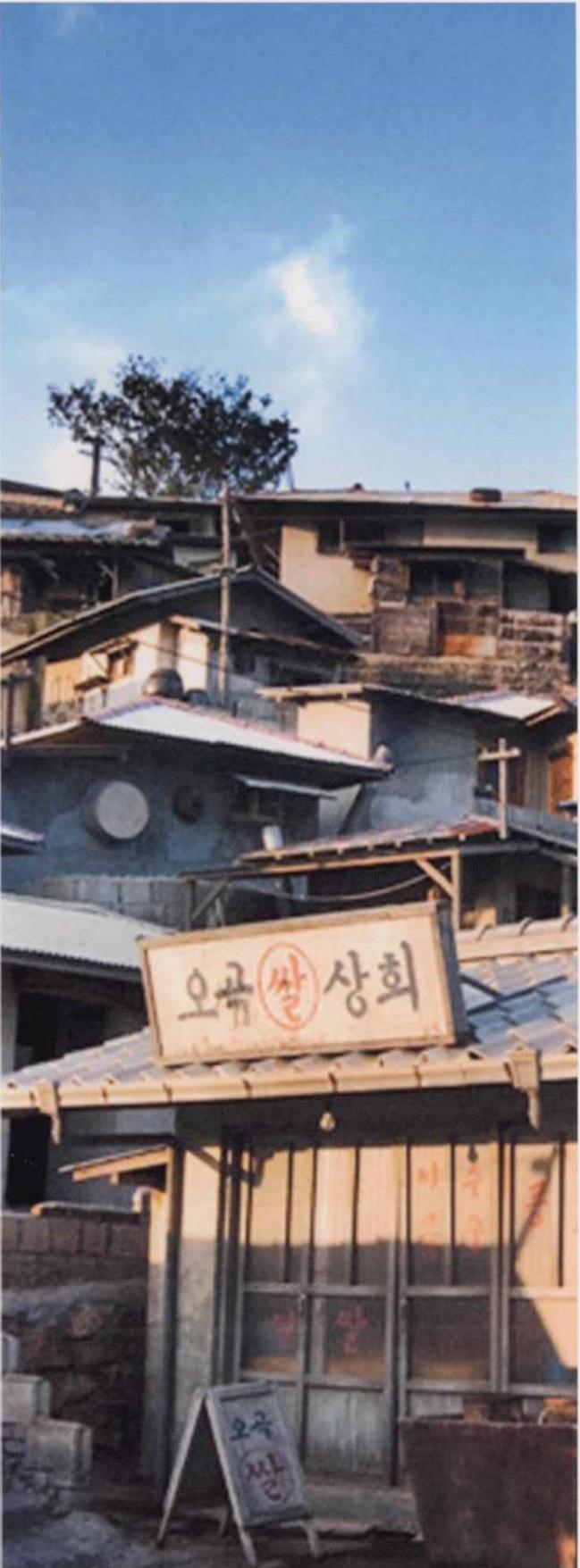
여름 지나 9월이면
 전세 계약 만기인데
 집 주인은 오늘도 찾아와
 전세금을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전세금도, 새 집도 아직
 구하지 못한 형환이 엄마는
 눈물만 흘리고 있고,

매미도 하루 종일
 나무를 점거하고
 목이 터져라 농성하더니
 이제 아예 바닥에 누워버려
 이리저리 나뿔굴며 울고 있다

중위 장동하 | 공군본부 정책홍보실

詩作메모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외국인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뉴스 중에서 집값에 대한 뉴스가 가장 신기하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 봉사활동 중에 우연히 알게 된 형환이네 가족, 산 밑에 빼곡하게 들어찬 집, 높게 솟은 아파트 중에 형환이네 가족이 행복하게 살 집 하나 없다는 사실이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맞이한 9월, 미당에서 이리저리 나뿔굴며 울고 있는 매미를 보니 톨금없이 형환이네 가족이 생각납니다.





참모총장과 함께하는 『하계 캠프』 소감문

공군발전 참여방안 공모를 통해 선발된 20명의 병사들은 8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간 참모총장이 주관하는 하계 캠프에 참가했다. 참모총장이 직접 제안하여 실시하게 된 이번 행사에서 각 부대 예심을 통과한 총 210편의 제안이 접수되는 등 병사들의 높은 호응 속에 공모가 진행되었다. 공군본부는 이 중 우수제안자 20명을 선발하여 캠프를 통해 최종 4편의 우수작을 선정했다. 참모총장이 참관한 최종 제안발표에서는 다음의 수상자들이 영예를 안았다.

- 최우수
 - 작사 근무지원단 병장 김정훈
공군 병사의 간부화(병사들의 자부심 제고를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 우수
 - 전투발전단 일병 박상욱
공군 디자인 특기의 병 도입(디자인 특기병 선발·운영/관리 제도화)
 - 방공포병사령부 일병 이찬영
공군 Win-Win 작전(인턴제도 및 추천서 제공을 통한 동기 부여)
 - 제30방공관제단 상병 조동선
UCC를 이용한 공군 하나 만들기(공군인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 및 홍보)

캠프에서 참모총장은 '간부 중심이었던 관리되어 온 공군 인력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병사들 중 20%를 간부화하여 활용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공군 발전을 위한 병사들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가 병사들은 캠프 이후 이번 행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소감을 보내왔다. 여기서는 그 일부를 소개한다. 지속적인 의견이 공군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제안내용 전역 전 병사들을 활용한 순회 면담관

30단
병장 구종욱

작은 아이디어였지만 그 생각을 인정해주고 들어주는 분들이 계시다는 생각에 한 명의 공군 병사로서 감격스럽기만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많은 일들에서 자기 성취를 느끼기란 쉽지 않았지만 제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시는 총장님의 모습은 저의 군생활 내내 큰 의미로 남을 것 같습니다. 공군병사로서 참여의 소중한 기회를 부여받았던 이 경험이 앞으로도 많은 후배 병사들에 의해 꼭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안내용 공군 병사의 간부화

작근단
병장 김정훈

애초에 하계 캠프는 저에게 캠프라기보다는 "워크숍"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계 캠프보다는 "하계 워크숍"이라든가, "하계 학회"로 더욱 이러한 모임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군 전체의 발전을 위해 방안을 제시하는데도 병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내용 행사를 통한 이미지 메이킹 전략



내가 공군인의 한사람으로서 제안한 내용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참모총장과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에 기쁨을 금치 못했다.
2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과연 이러한 기회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여러 참모분들 앞에서 내 의견을 피력하며, 그에 따른 칭찬도 받고 말이다. 수상은 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총장님과의 만찬과 여러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으로 만족한다.

제안내용 공군 디자인 특기의 병 도입



개선과 발전을 위한 병사들의 열정, 그것이 공군을 멋진 공군으로 만드는 힘일 것이다.
그러나 더 놀라웠던 것은 병사들의 제안을 경청하고 칭찬하시며 실제 정책으로 옮기시려는 참모총장님의 의지였다.
공군을 책임지시는 총장님께서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 그리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변화를 만드시겠다는 의지, 이는 무엇보다 내게 힘을 주었다.

제안내용 심리학을 활용한 공군발전 참여방안



제가 바라는 공군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계급과 기수, 장교와 부사관과 병이 서로 인격적이고 자율적인 관계를 쌓아갔던 3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부대에선 생각지도 못할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업무장에서, 사무실에서, 그 어떤 말보다 영외자분들께 너무나 듣고 싶었던 그 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공군의 가장 위에 게시는 분께 수십 번이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안내용 국비 유학 모병제



한 번의 참석이 한 병사의 인생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 영향력은 군에서 사회로 흘러갈 것이고, 저는 공군인인 것이 아주 자랑스롭습니다. 기본군사훈련단 때 편지와 편지봉투를 나누어주었습니다. 그 편지봉투에는 '다시 태어나도 공군'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다시 태어나서 공군에 올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공군'이라고. 비상하는 독수리와 같이 비상하는 공군을 소망합니다.

제안내용 특기제도 개편 및 참여의식 향상과 전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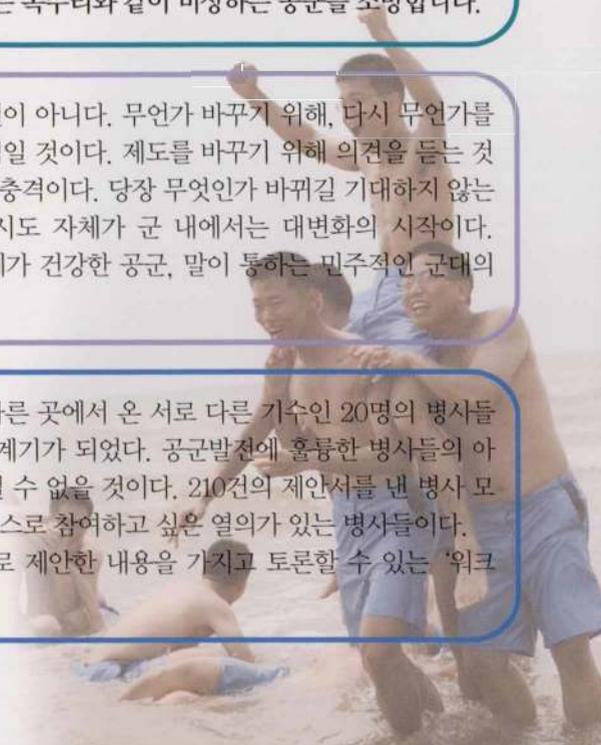


군대에서 무언가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무언가 바꾸기 위해, 다시 무언가를 바꾸는 것 자체가 발상의 전환이고 혁신의 초석일 것이다. 제도를 바꾸기 위해 의견을 듣는 것을 "사병" 계급에까지 내린 것, 그 자체가 이미 충격이다. 당장 무엇인가 바뀌길 기대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 자체가 군 내에서는 대변화의 시작이다. Communication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것 자체가 건강한 공군, 말이 통하는 민주적인 군대의 발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안내용 병사자치제도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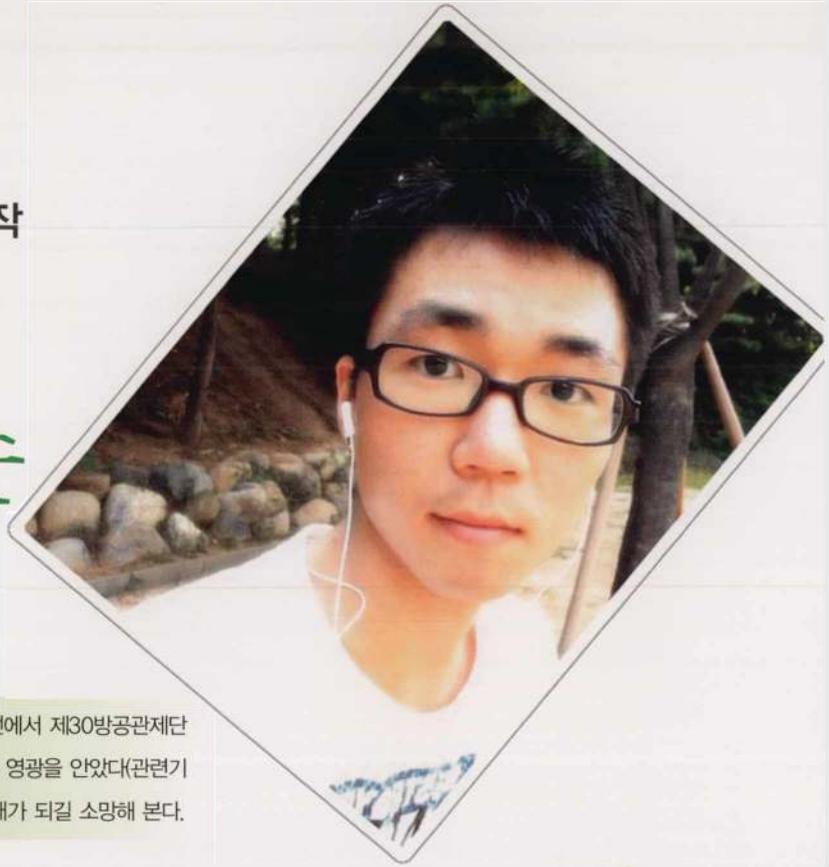
3일에 걸친 만찬회와 단체 활동을 통해 서로 다른 곳에서 온 서로 다른 기수인 20명의 병사들이 마치 십년지기 친구처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공군발전에 훌륭한 병사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된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210건의 제안서를 낸 병사 모두 상이나 휴가를 위해서가 아닌 공군발전에 스스로 참여하고 싶은 열의가 있는 병사들이다. 이런 병사들을 모아 제안 발표뿐만 아니라 서로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워크숍' 같은 시간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Rainbow Project 에세이 최우수작

가슴에 품은 초록색 새순

글 상병 이원철 | 제31중양방공통제전대 행정과



지난 6월 21일부터 실시된 레인보우 프로젝트 에세이 공모전에서 제30방공관제단 이원철 상병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총 6명의 장병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관련기사 25면). 이번 공모전이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공군 건설의 촉매가 되길 소망해 본다.

“뭐냐, 저거? 촌스럽다!” 고복을 입은 남학생들의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른쪽 가슴에 ‘그린 리본’을 달고 휴가를 나갔던 5월의 어느 날, 부대를 벗어나 도착한 지하철역에서 나는 원치 않던 소리를 듣고 말았다. 듣기 싫은 소리는 귀에 들리지 않으면 좋으련만, 내 귀는 왜 그리도 밝은지 쥐구멍이라도 찾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군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게 싫어 약복을 입은 모습도 부끄러워하는 내게, 하늘색 상의에 어울리지 않는 초록색 리본까지 단 채로 부대 밖을 벗어나는 것은 속된 말로 쪽팔림의 극치였다. 그날따라 지하철 안의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듯 했고, 집으로 가는 시간도 유난히 길게만 느껴진 건 기분 탓이었을까?

서둘러 집에 도착했을 때, 6주 만에 집에 온 아들을 반기는 어머니의 눈에도 그린 리본이 신기하게 보이셨나 보다. “아들, 가슴에 그건 뭐야? 가정의 달이라고 카네이션처럼 리본을 달고 나온 거야?”라는 어머니의 물음에 나는 순간적으로 짜증이 밀려왔다. “아! 나도 몰라! 그린 캠페인인지 뭔지 이상한 문서가 내려와서 귀찮아 죽겠어! 약복에 달고 있는 이 리본도 웃기고!” 예상치 못한 아들의 반응에 잠시 당황해하시던 어머니는 잠시 후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래도 엄마 눈에는 아들이 약복 입고 있는 게 멋있기만 한걸 뭐 그러니? 제대로 하는 건강한 공군? 얼마나 멋진 말이나?”라고. 그제야 나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내 오른쪽 가슴에 달린 그린 리본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적어도 6주 만에 보는 어머니께 큰소리를 낸 지금 내 모습은 ‘제대로 하는 건강한 공군’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말이다.

일거리로 다가 온 캠페인

언제부터였을까? 군에 입대하던 첫날 훈련소에서 적은 일기 속의 ‘멋진 군인이 되자!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건강한 청년이 되자!’던 나의 다짐들이 빗바랜 사진처럼 희미해져 버린 것은. 자대에 배속 받고 이등병, 일등병 때 고생하면서 ‘나중에 내가 선임이 되면 후임들에게 존경받는 선임이 되자!’던 다짐과, 아직도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군대 내 악·폐습들은 우리 손으로 뿌리 뽑자던 동기들과의 약속까지도. 상병 계급장을 단 지 4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나를 되돌아보니 초심을 잃어버린 듯해 씁쓸해지고 말았다.

올해 초, 아직 따듯한 봄이 오기 전 세상이 공공 얼어붙어 있던 때에 우리 공군은 불미스런 사건들이 터지며 이미지가 실추되는 아픔을 겪었다. 허나 솔직히 말해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도대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하며 방관해오던 나였다. 나 또한 자랑스러운 공군의 일원이면서 말이다. ‘우리 부대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도 군 생활 잘하고 있는데 모 부대는 기강이 해이해졌으니 저러는 게 아니겠냐?’며 오히려 비난하는 입장에 섰던 것이다. ‘Green Airforce Campaign’ 문서가 하달되었을 때도 귀찮게끔 일거리가 또 하나 늘었다며 투정을 부렸던 나였다. 행정과에 근무하는 나에게 이번 캠페인은 참여해야 할 운동이 아닌 단순한 일거리로 다가왔던 것이다.

다시 비상할 수 있는 기회

허나 이번 캠페인의 취지가 무엇이었든가? 솔직한 자기고백과 반



성의 기회를 통해 신뢰받는 건강한 공군으로 재도약하자는 것이 아니던가? 그런 의미에서 나는 몇 번이고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마땅했다. 내가 근무하는 부서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병영 생활에서도 선·후임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명량한 분위기의 전대를 만들고자 노력했는지, 단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반성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저 하루하루를 떠밀리듯 살아온 것은 아니었을까? 같이 생활하는 동료들과도 '어차피 전역하면 안 볼 사람들인데 뭐...'라는 식으로 거리감을 갖고 대하진 않았을까? 나는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그런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사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책이라도 읽는 사람의 마음이 닫혀있고 읽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이포가리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군의 힘찬 재도약을 위해 준비한 이번 캠페인도 참여하는 장병들 개개인이 자신의 이야기로 여기지 않고, 방관하는 입장에 선다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일정 기간 동안 리본을 달고, 그린 서명판에 거창하게 한마디 쓰는 것 등으로만 끝나버린다면 다시 비상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번 'Green Airforce' 캠페인 이후에 지속적으로 진행될 다른 모든 캠페인 활동에도 열정을 갖고 참여한다면 우리는 좀더 높이 비상할 수 있지 않을까?

전 미국 육군원수를 지낸 마셜 장군은 '군인의 마음, 군인의 혼, 군인의 정신, 이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했다. 군 생활을 반 이상 넘기면서 초심을 잃어버린 지금의 나에게, 'Green Airforce' 캠페인을 진행 중인 우리 공군에게 딱 들어맞는 격언이 아닐 수 없다.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 국민들로부터 '멋진 신사'라고 불리던 공군의 깨끗하고 믿음직한 이미지가 다시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번 캠페인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 부대는 이미 자체적으로 전대구호를 만들어 조금씩 새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며, 남을 배려하자!'라는 멋진 구호를 점포 및 일조행사 시에 제창하고, 근무장과 생활관의 현관에도 붙여놓아 상·하번 시에 꼭 보게 된다. 전대의 발전은 아무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대장님 이하 장교에서 병까지 모든 장병들이 정직과 성실함으로 맡은바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정성을 다해 최고의 부대로 만들기 위한 확고한 의지와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부대는 타부대보다 밝은 전망을 가졌음이 분명하다. 주임원사님과의 간담회뿐만 아니라, 부서별 상호이해증진 토론회와 전대장님과의 계급별 간담회 등 좀 더 깊이 있는 시간을 통해 전대의 발전방안들을 논의하고, 미흡했던 점을 반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서로를 이해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생활한다면 그만큼 전대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새순을 닮은 그린 리본

휴가에서 복귀하기 전날, 어머니께서 가꾸시는 화초 중 하나가 작은 꽃망울을 터뜨렸다. 화초에 새순이 돌아날 때마다, 꽃이 아름답게 피어날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시는 어머니께서는 이번에도 '애, 이것 좀 봐라. 너무 예쁘지 않니? 또 새로운 꽃을 피웠잖아.'라며 좋아하셨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한번 힐끔 보고 넘겼을 일인데 그날따라 오래도록 꽃을 바라보게 되었다. 초록색의 새순, 화사하게 피어나는 새로운 꽃. 문득 내 오른쪽 가슴에 달고 있는 그린 리본이 새순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이번 캠페인의 핵심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다. 초록색의 그린 리본은 새순과 똑같은 것이었다. 새순이 돌아난다는 것은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이며, 다시 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기에. 비록 지난 얼마간 우리 공군에게 안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추운 겨울 동안 찬바람과 흰 눈을 견디고 새순을 돌아내는 화초처럼, 우리 공군장병들이 가슴에 단 그린 리본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의 새순이 아니었을까?

어느덧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고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가는 무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주위를 둘러보니 온통 녹음으로 가득하다. 지금 입고 있는 군복부터 시작해서 생활관과 근무장을 오가는 길목,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과 이름모를 잡초들로 둘러싸인 사무실의 풍경까지 모두. 며칠 전 한차례 비가 내리고 난 뒤에는 그 녹음이 더욱 짙어지고, 공기도 깨끗해진 듯 하다. 이렇듯 자연의 순수함과 푸른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해보자는 다짐을 해본다. 더 나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계발에도 힘쓰고, 생활관 내에서도 선·후임 간의 명량한 병영생활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모범적인 병사가 되자고. 이런 다짐들이 흔들릴 순간도 있을 것이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들로 시련을 당하고 곤경에 빠질 때도 있을지 모른다. 누구에게나 언제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것은 군대라는 조직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에게 좌절과 실패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가슴 속에 새순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비상할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며 가슴에 품은 새순이 찬란한 꽃을 피우듯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병사인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군 전체가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나아가 국가의 발전 및 어려움 극복에 기여하는 일등공신이 될 것이란 확신을 가져본다.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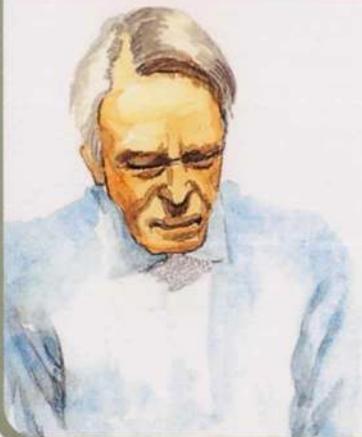


조직을 이끄는 숨은 공로자

그림 김영은

© 일일병영교육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편지」 中

알프스 산의 남쪽 기슭에 있는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지역의 환경정화를 위하여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고용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마을을 깨끗하게 청소해왔을 뿐만 아니라 산에서 흘러내려와 마을의 샘물로 이어지는 계곡물에 섞여있는 오물(汚物)들을 미리미리 청소하여 마을 사람들이 언제나 깨끗하고 맑은 물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덕분에 마을은 날이 갈수록 깨끗해졌고 아름다운 경관과 더불어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나면서 관광지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집행하는 예산안을 심의하던 도중 누군가가 노인에게 지출되는 돈에 대해서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 노인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무엇 때문에 별 쓸모없는 사람을 허비다 고용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을은 더 이상 더럽지도 않으니 이제는 그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날의 총회에서 노인은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차츰차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이유를 살펴보니 노인이 해고당한 후 마을을 청소하고 가꾸는 사람이 없자 마을의 샘물에는 얇은 적갈색 이끼가 생기기 시작했고 물은 점점 더러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답고 깨끗하던 마을은 지저분해졌고 이곳 저곳에서 악취가 풍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전에 없던 질병까지 발생하여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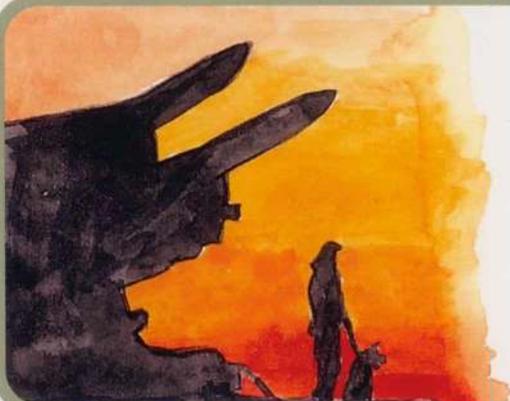
이에 크게 당황한 마을 지도자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지난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고 옛날 마을을 청소하던 노인을 다시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도 채 지나지 않아 샘물은 다시 맑은 생수로 변하기 시작했고, 알프스 산 기슭의 그 마을은 다시 전과 같이 깨끗해지면서 아름다운 휴양지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군에도 알프스 인근 마을의 노인과 같은 장병들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안전한 비행을 위해 항공기를 점검하는 정비사, 비행안전을 위해 활주로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FOD 요원, 밤새 단눈으로 기지경계 근무를 서는 초병, 매일 수천 개의 식판을 닦는 급양병,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기지오각을 말끔히 정리하는 제초병 등 그들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당장 불편함을 겪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부대 전체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시 이처럼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크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노고를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음지 속에서 묵묵히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그들 하나하나가 우리 공군을 이끌어가는 숨은 공로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향곡과 베토벤

글 정홍래 | 서울대학교 음악학 석사

사람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교향곡

지난 8월 23일,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하여 “상하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에 다녀갔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12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들 교향악단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4개의 합창단이 한데 어우러져 화합의 음악을 만들어냈다. 이들이 함께 연주한 곡은 평소에는 좀처럼 감상하기 어려운 말리의 <천인교향곡>. 작곡가 구스타브 말러(Gustav Mahler, 1860-1911)의 교향곡 제 8번은 무대 위에 무려 1,000여 명의 연주자들이 올라 음악을 만든다고 해서 <천인교향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 1910년 9월 12일, 이 작품이 초연되는 데에만 무려 1,039명의 인원이 동원되었다. 상상해보라. 야외도 아닌 실내의 무대 위에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그 웅장한 장면을...



천인교향곡 연주장면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제8번

〈천인교향곡〉은 청중을 압도하는 대규모의 악곡이라는 점도 놀랍지만,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 아름다운 기악음악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이 교향곡이 지닌 음악사적인 가치는 이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가 있는 첫 번째 교향곡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사실, ‘교향곡(Symphony)’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악적인’ 장르로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여러 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진 관현악곡을 말하는데, 이러한 특징에 있어서 오페라와 같은 성악곡과는 대조된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이러한 불문율을 깬 사람이 바로 베토벤이다. 루트비히 반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은 교향곡에 사람의 목소리를 첨가하였으며, 이것으로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은 음악사적으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

교향곡과 베토벤

베토벤의 교향곡을 이야기하기 전에, 서양고전음악에 있어서 ‘교향곡’이라고 하는 장르를 잠시 짚고 넘어가자. 3월호에서 영화 〈파리벨리〉와 〈왕의 춤〉을 통해 이야기 했던 오페라가 바로크 시대 작곡가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면, 고전주의 시대 작곡가들의 야심작은 단연코 교향곡이라 할 수 있다. 학창시절 고전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 3인으로 ‘하모베’를 외웠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은 모두 교향곡으로 그 명성을 얻었다. 하이든은 107곡, 모차르트는 41곡, 그리고 베토벤은 9곡의 교향곡을 작곡하여 불후의 명성을 지금까지도 이어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세 명의 작곡가 가운데 가장 먼저 태어난 하이든의 교향곡의 작품 수에 비해 이후에 태어난 베토벤의 작품 수는 훨씬 적다. 그렇지만 후기로 갈수록 교향곡의 규모는 견잡을 수 없이 커진다.

다시, 베토벤의 교향곡 이야기. 베토벤이 이룩한 중요한 업적 중의 하나는 기악음악에 성악을 도입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교향곡 제9번 〈환희의 송가〉에서 이루어졌다. “미미파솔/솔파미레/도도레미/미~레레”로 시작하는 이 〈환희의 송가〉는 음악에 문외한인 사람도 한 번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곡으로, 독일의 작가 실러의 작품을 토대로 작곡되었다. 그러므로 〈천인교향곡〉을 작곡한 말러의 작품은 베토벤이 교향곡에 성악을 도입한 혁신적인 면을 보다 확대시킨 것이다. 베토벤은 〈환희의 송가〉 중 특히 마지막 악장에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형제애를 강조한다.

그래서인지, 이 작품은 계몽이 아닌 정서적 호소로서 서로 다른 인종과 민족 사이의 이해와 소통이 가능하다고 믿게 만드는, 음악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작품이다. 1989년 베를린의 크리스마스,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은 동독과 서독의 오케스트라를 연합하여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연주한다. 그가 베를린에서 기획한 이 공연은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았던 장벽이 무너지고 자유의 길이 열린 것에 대한 음악적인 감사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가 하면, 2001년 유네스코는 이 작품 전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으며, 이 작품은 유럽연합의 찬가로 쓰이고 있다.

 “따따따따아아안~”
베토벤 스스로 ‘운명의 문을 두드린다’고 표현했던 ‘운명의 동기’. 이 동기만 듣고도 우리는 이 작품이 베토벤의 또다른 걸작 교향곡 제5번 〈운명〉임을 알 수 있다. 작곡가로서 청각장애를 가졌던 불운한 삶에 대한 베토벤의 불굴의 의지와 격정적이고 투쟁적인 태도가 느껴지는 이 작품 역시 이후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다.



베토벤

히틀러 시대의 뉴스 시간, 적 군함이 침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면 이 음악이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시간에 프랑스 레지스탕스는 라디오 방송으로 자유와 저항을 맹세할 때 이 음악을 사용했다.

그런가하면, 베토벤은 본래 나폴레옹에게 헌정하려는 목적에서 교향곡 제3번을 작곡했다. 프랑스 대혁명의 시대를 살았던 베토벤은 나폴레옹이 '자유, 평등, 박애'라는 프랑스 대혁명의 이상을 현실 정치에서 실현할 것이라고 믿고 <보나파르트>라는 제목으로 이 작품을 작곡한 것이다. 그러나 1804년 나폴레옹 스스로 황제에 등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곡의 제목을 <보나파르트>에서 <영웅>으로 바꾼다. 베토벤의 자필악보의 표지에는 '보나파르트'라는 이름을 칼로 긁어낸 흔적이 남아있다.

서양음악사의 긴 흐름에 있어서 정점에 위치하고 있는 작곡가 베토벤. 그는 불우한 가정환경과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인간으로서 이룩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음악을 작곡했다. 그는 하이든과 모차르트가 이루어 놓은 고전주의 시기의 음악을 더욱 확대시키고 집대성하여 낭만주의로 가는 길을 열었으며, 이것은 교향곡이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서 입증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불멸의 위대한 작곡가인 베토벤을 악성(樂聖), 즉 음악의 성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



베토벤의 교향곡 제3번 <영웅>의 자필악보 표지. '보나파르트'라는 이름을 칼로 지운 흔적이 남아있다.



연주회에서 박수치는 법

'교향곡'은 대부분의 작곡가들이 심혈을 기울이는 만큼, 일반인들이 연주회에서 감상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장르이다. 등장하는 악기의 종류와 수도 많고 연주시간도 길어서 청중들이 언제 박수를 쳐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연주회에서 교향곡을 들을 때 언제 박수를 칠지 몰라 부담을 느끼는 관객들에게 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연주회 프로그램을 주의깊게 살펴보라는 것이다. 음악회 프로그램을 읽어보고, 그 작품이 몇 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면 그것으로도 이미 반은 성공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 <운명>이 연주되는 음악회장에 갔다고 하자. 무엇보다 가장 먼저 당일 음악회 프로그램을 구입하라. 그러면 프로그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을 것이다.

- Ludwig van Beethoven(1770-1827)
Symphony No. 5 in C minor, Op. 67
1. Allegro con brio
 2. Andante con moto - Più mosso - Tempo I
 3. Allegro
 4. Allegro - Presto

우리말이 없어서 불편할 수도 있겠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루트비히 반 베토벤(1770-1827)
교향곡 제5번 다단조, 작품번호 67번

1. 빠르고 씩씩하게
2. 느리고 활발하게 - 좀더 활발하게 - 본디 빠르기로
3. 빠르게
4. 빠르게 - 매우 빠르게

이다. 여기에서 1, 2, 3, 4라는 번호는 없을 수도 있고, 위와 같이 우리말로 풀이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숫자 옆의 이탈리아어는 '빠르기'로, 이러한 빠르기말은 '악장'을 지칭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은 하나의 작품에 4개의 작은 '악장'이라는 단위가 속해 있다. 이러한 구조는 교향곡뿐만 아니라 다른 서양음악 장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작품이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4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진 이 한 작품이 모두 끝나기 전까지 박수를 쳐서는 안된다. 이것이 바로 음악회에서 지켜야 할 예의이며, 그것은 마치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들이 축구 경기의 규칙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다만 음악회장이 더욱 정숙한 것 뿐이다. 하지만, 당일 연주회 프로그램만 있다면 그다지 긴장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자. 그리고 악장 사이의 짧은 공백에 박수를 치느냐 마느냐 고민할 것이 아니라, 연주자들과 같은 호흡으로 다음 악장을 준비하자.

김종휘 지음

내 안의 열 일곱



글 중령 강성구 | 공군본부 비서실

작년 8월 아들의 첫 家出이 있었다. 그 이후 나의 감정은 파도치는 바다 위에 있다. 아들과의 협상은 결렬되기 일쑤였고 햇벌정책도 경제봉쇄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때로는 아들을 찾아 밤거리를 들개처럼 헤매도 보고 비어있는 아들의 침대를 보고 출근하기도 했다. 이번 여름 두 번째 출가수행(가출)을 마치고 돌아 온 아들의 머리는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왼쪽 눈썹엔 은빛 피어싱이 박혀있었다.

‘오늘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거나 ‘아빠를 보면 숨이 막힌다’는 협박과 항변은 난생 처음 ‘내가 이끄는 가정에 따뜻함이 없고 나의 영혼과 품성이 자기모순과 이중인격으로 뭉쳐진 불량품’인지도 모른다는 고통스런 반성을 하게 해주었다. 이런 사정을 주변에 크게 떠벌리고 다닐 수도 없지만 혹 알게 된 사람들도 나를 위해 무엇인가 조언해 주지는 못했다. 대부분의 부모들 역시 이런 분야에는 초보자였고 오히려 ‘내 자식은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위로를 얻는 것 같았다.

아들의 행방을 찾느라 본의 아니게 친해진 친구들(물론 아들을 찾는데 단서를 준 놈은 없었지만) 여섯 놈을 이끌고 대천 해수욕장을 가게 된 것은 그곳에서 그들의 자유(아마도 술, 담배가 아닐까 싶지만)를 보장해 준다는 약속을 한 덕분이었다. 누가 보아도 날라리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놈들을 데리고 다니는 일은 나 역시 주위로부터 주목받는 인물로 부상하게 했다. ‘폼생폼死’로 살아온 나였지만 특별한 정신세계를 가진 아들과 부대끼면서 또 그런 부류의 아들 친구들과 접촉하면서 어느새 나도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동참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놈들의 보호자로서 당당해진 나를 발견하고는 바닷가 한 구석에서 쓴웃음을 지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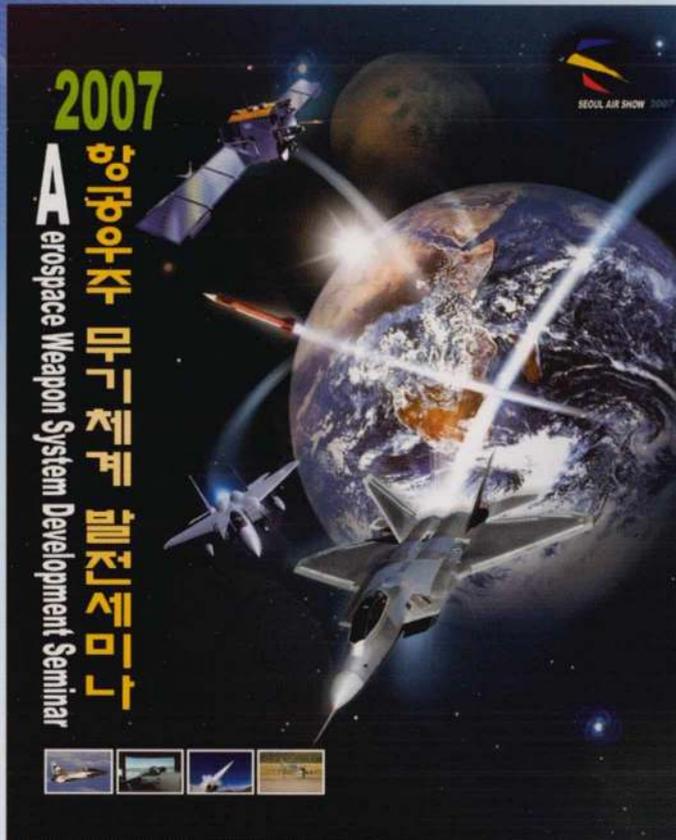
이 책은 이렇게 전혀 모범적이지 않은 10대를 두었거나,

둘 개연성이 있는 부모나, 그런 10대를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이런 혼란함 속에 살고 있는 나 같은 이들을 어여뻐 여길 마음의 여유가 있는 이들이 읽어볼만한 책이다. 문화평론가로 이름이 알려진 김종휘가 2년간 대안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만나게 된 평범하지 않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그만의 평범한(?) 시각으로 이해하고 해석한 보고서다. 그는 교사라기 보다는 마치 우주비행사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별들을 탐사하며 각기 다른 그별 그별의 독특한 모습들이 얼마나 나뉠대로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해주듯 한 아이 한 아이가 가진 ‘존재’로서의 ‘빛남’을 이야기 해준다. 또한 그의 과거사를 빗대어 소개함으로써 우리들도 한때는 마그마가 식지 않아 몸부림치던 아기별들이었음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물론 아직도 나의 감정은 파도치는 바다 위에 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난 지금, 나는 ‘노은동 건달들’로 명명한 아들과 그 친구들을 더욱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지구도 한때는 뜨거운 大氣가 가스로 가득찬 시기를 거쳐 지금과 같은 생명의 푸르름을 얻게 되었듯 그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축복된 미래가 도래하기를 기원하며 지구에 관광 온 그들의 좋은 가이드가 되어야겠다고 눈물나게 다짐해 본다.

이 책의 마지막장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중 한편으로 마무리 된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왔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의 소유가 아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사랑을 주어도 좋지만 당신의 생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들을 좋아하려 애쓸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라.”

아직도 나의 감정은 파도치는 바다 위에 있다. ㉠



논문 발표

- 항공무기 분야(기체, 공력, 무장)
- 시뮬레이션 분야(모의비행장치, M&S)
- 우주/방호 분야
- 정보/전자전 분야

참가신청 및 문의

- 참가신청
 E-mail) weapon@airforce.mil.kr
 작성내용 : 성명, 주소, 근무처/직책, 연락처, 관심분야, E-mail
- 공군전투발전단 무기소요처
 Tel) 042-552-5851~3
 Fax) 02-506-5899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Tel) 02-7 61-3134
 Fax) 02-7 61-1544

세미나 개요

일 자 : 2007년 10월 17(수) ~ 18(목)

1일차 : 항공무기, 시뮬레이션
 2일차 : 우주/방호, 정보/전자전

- 장 소 : 에어쇼 행사장(서울공항) 세미나룸
- 주 최 : 대한민국공군(전투발전단)
- 주 제 : 첨단 무기체계 기술발전 동향과 항공우주력 건설
- 후 원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참 조 : 서울에어쇼 홈페이지(www.seoulairshow.com)

産·學·研·軍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성명 : _____

주소 : _____

□□□□ - □□□□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월간 공군 편집팀

3 2 1 - 9 2 9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성명 : _____

주소 : _____

□□□□ - □□□□

공군체송망을
이용해 주세요

수신 : 참모총장

참조 : 정책홍보실장(문홍과장)

발신 :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6295, 02) 506-6295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퀴즈정답

1.

2.

3.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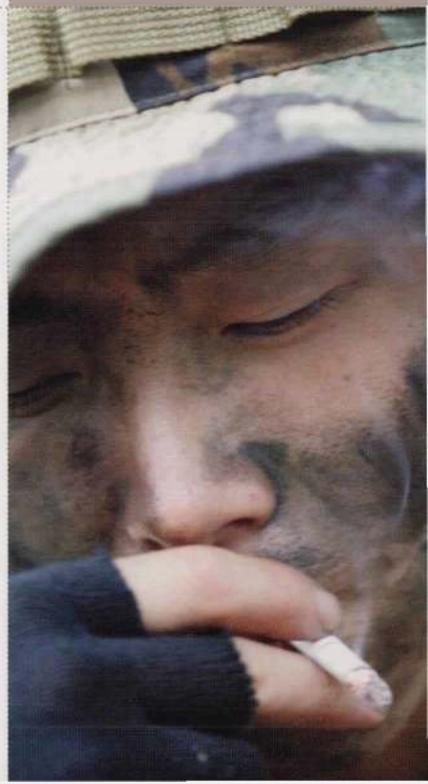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퀴즈정답

1.

2.

3.



Quiz

월간 「공군」 9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9월 20일까지

1. 공군 항공기 항법계통의 디지털 시대를 알리는 서막에 해당하는 기종으로서 맥도넬 더글라스에서 생산하여 2007년 9월 한국 공군 도입 30주년을 맞는 기종은?
2. 공군의 독서 생활과 도서관 이용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다량의 군사항공도서를 비롯하여 18만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공군의 중앙도서관에 해당하는 기관은?
3. 지구의 대기권 중에서 중간권, 열권, 그리고 이온권을 지칭하는 말로, 태양 자외선과 X-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11년 주기 태양활동에 따른 직접 변화를 겪으며, 2011년을 정점으로 우주항법, 통신, 전기, 군사 분야에서의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감시가 요구되는 대기권은?

2007년 8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왜가리
2. 공군항공우주캠프
3. 김대욱 대장

당첨자

경상북도 청도군 최우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강주찬
경기도 수원시 원준희
서울특별시 강북구 윤은미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하숙
충청남도 태안군 고영욱
울산광역시 중구 이영광

<공군지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10
정책홍보실 문화홍보과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 afzine@airforce.mil.kr(인터넷)
sjy0402@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 02-506-6295/042-552-6295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 공군」 공식 슬로건(2007.8.1 선정)

대한민국공군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심벌로고는 하늘과 우주로 뻗어나가는 항공우주군의 기상을 별과 날개를 사용하여 상징화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영공방위를 전담하는 항공우주군으로서 제공권을 장악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